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영아기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신 하 나

영아기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신 하 나

인 준 서

신하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영아기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영아와 상호작용 할 때 아버지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어떠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둘째,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문화 기술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는 영아 2명과 그들의 아버지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각각 주 2-3회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은 비형식적인 형태로 수시로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참여관찰일지, 아버지와 면담 전사본, 비디오 및 사진, 저널)를 반복하여 분류, 조직,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영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들은 영아의 행동을 영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석하고 반응하거나 때로는 영아의 신호에 무반응적

인 행동을 취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영아의 감정에 대한 대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영아에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즉, 아버지들은 영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문장과 단어를 반복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문제를 드러냈고 이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영아의 아버지들은 위험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느리고 더디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들은 한 가지 상황에만 집중하여 한꺼번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없었으며 영아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아버지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버지들은 영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영아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엄마를 더 찾고 따르는 영아들의 행동으로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둘째, 영아의 아버지들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가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모방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원인을 찾아보고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여 묻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보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아의 의도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영아의 생활패턴을 경험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육아 상식을 익혔을 뿐 만 아니라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조언을 듣는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영아기의 특성과 아버지의 역할	7
1) 영아기 발달적 특성	7
2) 아버지의 역할	10
2.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15
1) 상호작용의 개념 및 특성	15
2)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의 특성	16
III. 연구방법	21
1. 연구 참여자	21
2. 자료수집	25
3. 자료의 타당도 작업	29
4. 자료 분석과 해석	31

IV. 결과 및 해석	33
1.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어려움	33
1)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영아 의도 파악의 어려움	33
2) 영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언어사용의 어려움	43
3)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 어려움	48
4)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상호작용	53
5) 엄마만 찾는 영아	56
2.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아버지들의 노력	58
1) 아내의 상호작용 모습 모방하기	58
2) 상황에 따른 원인 찾기	62
3) 영아의 생활 패턴 경험하기	65
4) 매체를 이용하여 육아 상식 익히기	68
5)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조언 듣기	71
V. 논의 및 결론	74
1. 요약 및 논의	74
2. 결론 및 제언	84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기초적인 터전이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양식, 행동양식 등을 배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가정이다. 또한,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질이 되며, 바탕이 된다. 특히,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맺은 가족과의 관계는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는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족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되어 가기 때문에 가정은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강심, 2004). 이러한 가정 내 인간관계 중에서도 부모와 영유아간의 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동시에 영구적인 관계이므로(김경희, 2005)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인성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기본적인 인격구조 및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며, 지속적인 성장발달을 해나간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 증가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남성은 생계 담당자로 여성은 가사 담당자로 양분하던 종래의 역할 구분에서 벗어나 남녀가 가족 내 역할을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1980년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경제적, 물질 환경 제공자 및 조성자의 역할’

등 도구적 역할을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녀를 능동적으로 돌보며 양육하고 가사활동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공진수, 2006) 자녀와 잘 놀아주는 아버지(권오진, 2009) 등 새로운 측면의 아버지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버지의 교육적 역할 재조명과 위상정립을 하려는 시도들로 이어졌으며(김지희, 2007), 현대사회에서 이제 아버지는 바깥 중심의 삶 뿐 만 아니라 가정 내의 긴밀한 정서적 가족 관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조형숙, 2008). 즉, 아버지는 자녀 양육측면에서 유아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함은 물론 어머니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충족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유아에게 좋은 모성환경을 조성하도록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모 공동의 역할 및 책임이 가족 체계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Parke와 Tinsley, 1987; 송수원, 2002에서 재인용).

아버지의 역할은 영유아의 성에 따라서도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Bigner, 1979; 이은화, 이경우, 1986, 재인용) 아버지는 남아와 여아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 남아에게는 '남성성'을, 여아에게는 '여성성'을 강조하고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자주 대화를 시도하며, 자주 웃음을 보이고 육체적 활동을 격려한다(Burdon, 1994). 이같이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줌으로서 남녀 영유아의 사회화에 또래 친구나 어머니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변화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점차적인 아버지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최근까지 아버지의 역할 및 아버지-자녀관계, 아버지의 이미지, 양육참여 및 행동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다루어지고 있다(Shwalb, D W., Nakazawa, J., Yamamoto, T., & Hyun, J.-H. 2010). 특히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자녀의 발달과 성장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아버지가 자녀의 인지발달 (Gadsden & Ray, 2003; McBride, Schoppe-Sullivan & Ho, 2005) 및 신체, 정서, 사회성발달(Dubowitz et al., 2001; Flouri & Buchanan, 2003) 등 전인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허영림, 2007). 즉,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태도로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는 유아의 인지능력, 감정이입능력(은주영, 류도희, 이귀옥, 2001), 대인문제해결 사고능력(유승은, 2007)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와 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인지 능력 중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서명원, 2009). 아버지와 놀이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체격, 체력 점수는 더욱 높게 나타나(민경선, 손기수, 배기열, 1997) 아버지의 신체활동 참여도가 유아의 운동능력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서 실제적인 참여와 함께 아버지의 책임감은 영아의 사회 정서 발달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윤현정, 201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발달(강혜란, 2000: 한현아, 2000: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과 친사회적 도덕판단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정현희, 최경순, 1997), 아버지가 높은 부모 효능감을 가지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의 성향을 보일수록 유아의 긍정적 자아 개념 발달이 원만히 이루어진다(송명순, 2007: 장석경, 이지현, 2008). 따라서, 영아기 발달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은 영아의 발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김민정, 2005), 어머니와 질적으로 다른 자극을 제공하는 아버지의 역할(Lamb, Pleck & Levine, 1985)은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필수적이다.

이러하듯, 많은 선행연구 결과가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영유

아의 전인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고함으로써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얻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무기력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되어 신체적인 피로와 정서적인 긴장이 연속되므로 신체적·정서적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Fuligni & Brooks-Gunn, 2002).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영아에 대한 신기함과 함께 영아발달특성에 대한 정보와 자녀 양육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며(김지희, 2007), 현실적인 부모 됨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김순옥, 이민아, 2006). 또한 출산 전 아버지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을 받았으나 이제는 어머니가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에게 할애함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Parke, 1995). 그러나 영아기는 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고, 유아기 발달을 예측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결함은 이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영아에게 있어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 할 때(김민정, 2005),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적응과 효율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영아기에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아버지는 이후에 이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아기에게 우유를 먹여주고, 함께 놀아주고, 안아주고, 목욕을 시켜줌으로써 유대감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어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형성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정순화, 2008).

한국의 아버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현 사회가 요구하는 양육자로서 자녀의 놀이상대자, 정서지원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아버지 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김낙홍, 2010). 그러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달

리 실체는 생계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정에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직장에 투자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듯 바람직한 아버지에 대한 역할인식과 실제 역할수행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으로 인해 아버지는 바람직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갈등을 겪고 있다(황정애, 이정덕, 2000).

이와 같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알려져 있어도 아버지들의 육아에 대한 지식과 참여는 현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자녀가 영아일 경우 아버지의 육아참여는 더욱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휘숙(1986)은 아버지들이 영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은 어머니와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양육적 능력을 지녔으며, 어머니와 다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영아의 지적발달과 성격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아버지 됨과 관련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버지의 연령이 30대이며, 퇴근시간이 6시 이전인 경우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보였으며(이순희, 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아이와 이야기하거나 함께 놀아주기’와 같이 상호적이며 보조적인 활동에 가장 자주 규칙적으로 참여한 반면, ‘밤에 자다가 아이가 울면 달래주기’나 ‘목욕시키기’와 같이 힘들고 주의가 많이 요구되는 실질적인 양육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김상하, 1999). 또한, 김지희(2007)는 아버지-영아의 신체적 놀이 및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통해 영아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아버지들은 프로그램 실시 후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놀이 상황과 연결이 되는 돌봄을 더 쉽게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기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와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아버지들의 인식 변화

를 질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인식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영아와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아버지들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에서 볼 때 영아를 둔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아와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영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성장배경, 아버지의 자녀 교육관,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의미 등과 같이 보다 역동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영아와 상호작용에서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아버지들의 노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원활한 아버지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둘째,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영아기의 특성과 아버지의 역할

1) 영아기 발달적 특성

영아기는 인간의 발달에 기초가 되는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으로써 이 시기의 경험은 인간의 전 생애의 발달에 영향을 주며, 발달의 기반을 형성한다. 영아기는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므로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아기 동안의 적절한 발달의 중요한 이유는 영아기의 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반면, 이 시기에 형성된 발달적 결함은 성장 이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김영두, 2011)

영아의 신체 발달은 체중은 생후 1년이 되면 출생 시 체중의 약 3배가량이 되며, 신장은 생후 1년이 되면 약 1.5배가 된다. 전반적으로 영아기 영아들은 키와 몸무게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걷기가 시작되면서 혼자 걷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의 놀라운 변화는 자신의 몸을 조정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에서 스스로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발달하는 것이다. 영아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탐색하며 반복 활동을 통해 누워있는 정적인 상태에서 뒤집기, 기기, 앉기, 일어서기, 잡고 걷기, 걷기의 발달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영아는 탐색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며 사물을 탐색 조작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해진다. 또한

영아 스스로의 호기심을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그동안 수동적인 입장에서 자기 의사표현을 하게 됨으로써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듯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습득한 정보로 영아는 놀라운 신체적 발달을 보인다.

영아의 언어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음과 행동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점차 표정과 웅얼이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빠르게 언어를 조직하는 능력을 배우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언어를 획득하게 된다. 언어의 이해는 영아기의 중요한 인지적인 성취이며, 의미 있는 과정이다. 영아의 웅얼이나 제스처에 성인의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문법과 의사소통 규칙을 이해하게 된다. 영아기의 언어발달과 적응의 순서는 대부분 동일하나 언어를 획득하는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다(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5). 1세가 되면 평균 10개 정도의 어휘를 습득하게 되고 발달이 빠른 영아들은 두 반말로 이루어진 어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5). 18개월에서 24개월경에는 영아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시켜 사용하는데 ‘엄마 맘마’, ‘엄마 코자’ ‘예쁜 눈’ 등 두 단어 문장을 사용하며 두 단어 가운데 강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조하게 된다.

영아의 언어발달은 실제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 어휘의 사용이 더욱 명확해지고 다양해진다. 따라서 부모는 영아가 다양한 실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영아와 자주 대화를 통해 언어 발달을 촉진하며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 발달은 영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고 인지적 활동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므로(임유경, 2003),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 영아에게 적절한 상호작용과 환경은 필수적이다.

영아의 사회성 발달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과 환경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게 되고, 자신을 인식하며, 구별하며 발달한다. 이런 구별을 통해 점차 사회를 인식하게 되며 사회 속에서의 살아가는 방법인 규칙을 터득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아는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을 형성해 나간다. 또한 영아는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인적 환경과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접촉과 긍정적 관계 형성, 의사소통 등으로 통하여 사회성의 기포를 형성하게 된다.

Shore(1997)는 영아에게 따뜻하게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자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도록 하며, 언제 자극을 원하고 언제 휴식을 원하는지 영아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아의 정서발달은 갓 태어난 신생아의 정서는 미분화된 흥분 상태이나 생후 2개월이 되면 쾌와 불쾌의 두 갈래로 분화된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영아기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8개월에서 10개월이 되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Feinman, 1992).

영아기의 발달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달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인지 발달은 다른 발달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더욱 정교해진다. 1세가 되면 사물의 크기, 색, 형태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고 또래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 각 부위의 간단한 기능을 알 수 있고 주변 사물의 용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5). 영아에게 적절한 인적, 물적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탐색하고 사고하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강경미, 2005). 이때 부모는 영아의 인지적 탐색 과정에서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하여 발달이 더욱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시기의 영아들에게 물리적, 인적인 환경요인이 그들의 발달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영아에게 환경을 제공해주는 주체자인 주 양육자, 부모의 역할은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부모는 사랑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영아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어야 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성은숙, 2008).

2) 영아기의 아버지 역할

역할이란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체제 내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지어진 요구, 규범, 기대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며,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습득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받아들이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구성된다(김영희, 1998). 그러므로 남성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게 되면 아버지라는 위치에 서게 되고 이것은 사회적, 문화적 요구나 기대에 의해 적절한 적응력을 필요로 하는 자녀양육이라는 부모역할의 한편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 증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남성은 생계 담당자로 여성은 가사 담당자로 양분하던 종래의 역할 구분에서 벗어나 남녀가 가족 내 역할을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1980년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경제적, 물질 환경 제공자 및 조성자의 역

할’ 등 도구적 역할을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최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버지상은 다정다감한 아버지, 안내자로서의 아버지,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 민주적인 아버지, 경제적으로 유능한 아버지로 변화되고 있다(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또한 자녀와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며 자녀와 관련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에게 온정적인 ‘자상하고 친구같이 대화하는 아버지’가 이상적인 아버지상이며(문혁준, 2006; 이혜경, 2007; 장영애, 이영자, 2009), 자녀를 능동적으로 돌보며 양육하고 가사활동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공진수, 2006) 자녀와 잘 놀아주는 아버지(권오진, 2009) 등 새로운 측면의 아버지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보듯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어머니와 함께 공동양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아버지에게 가족생활의 경제적인 책임 뿐 만 아니라 자녀의 일상적 삶에서 긴밀한 정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Fagan & Palm, 2002; Lamb, 2004; 김지원, 2011에서 재인용).

아버지의 역할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아버지가 모방의 대상이 되고 처벌과 보상을 통해 훈육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적절한 성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인지발달론자들은 아버지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자녀의 인지양식을 발달시키고 촉진한다고 하여 그 중요성으로 강조하였다. 프로이드와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초기 애정과 존경에 기초한 아버지는 자녀의 자아발달과 현실검증 그리고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돕는다고 하였다. 특히, 초자아가 형성되는 남근기에는 이성 부모에 대해 느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성 부모를 동일시하며 부모의 모든 가치판단

기준이나 도덕성을 그대로 내면화하게 되므로, 남아의 갈등해결에 아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Freud, 1921; 김광웅, 박성연, 1997, 재인용).

인생의 성장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에 있는 아기는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나 많은 손길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첫 아이를 갖게 되는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미리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모두가 아기의 필요를 다 알아채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영아에게 관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돌보아줌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영아가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김은경(2000)은 영아기는 시신 양면에 걸쳐 인간에게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로 이 기간에 수유, 대소변 가리기, 보행완성, 언어 개시 등 중요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의 육아방법이 이후의 성격형성의 기틀을 잡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시기에 아버지는 아동양육 부양의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수면 문제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 성격에 대한 기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영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시기임을 밝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버지는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모성 양육을 생물학적인 필요에 의해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주장과 함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일 197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어머니가 일차적 양육 책임자이고 아버지는 단지 보조자로서만 역할을 수행한다는 고정적 사회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Shore(1997)는 유아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대해서 아버지의 헌신이 유아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며 유아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의 노력을 유아의 초기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정현희, 최경순(1995)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인지발달을 강화 시키고 성역할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Lamb(1986)은 영아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는 짧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인상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아에게 어머니보다 더 인상적인 사람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순희(2004)는 영아기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능숙하게 영아를 안고 어르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영아기 때의 아버지 역할 수행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의 양육적 행동은 유아의 문제해결력 및 지적능력과 상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유아의 인지발달을 강화한다(김광웅, 박성연, 1995; 김희주, 1997). 또한 아버지의 신체활동 참여도와 운동에 대한 관심은 유아의 운동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오연주, 2001) 아버지의 자원제공자, 양육자로서의 강한 책임감은 영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이영환, 2008).

이렇듯 영아기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자들은 영아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것보다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왔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아버지가 분만에 참여하고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병실에서 지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연구들은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Greenberg와 Moris(1975)는 아버지가 신생아들과 있을 때 어느 정도 기뻐하는가를 알아보고자 막 아버지가 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버

지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 3일까지, 혹은 그 전에 이미 아기와 유대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출산 후 아버지가 영아에게 끌리게 되는 것은 본능적으로 내재해 있는 영아에 대한 아버지다움이 영아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임으로써 표출되며, 영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관계로 진전되고 이러한 관계는 놀이위주로 진행되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Greenberg & Moris, 1974; May, 1982). 이렇게 이루어진 아버지와 영아의 관계는 영아가 1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획득하게 되는 아버지됨에 영향을 미친다.

Ross와 O’leary(1976)는 아버지들이 병실에서 어머니, 아기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한 결과 아버지들도 아기를 만지고 안아주고 더듬거나 그들을 흉내 내는 등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기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유아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Parke, 1989). Lamb(1981)도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지만 아동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할 뿐 아니라 아동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런 민감한 반응은 비단 아동뿐만 아니라 영아의 여러 가지 울음의 유형을 아버지들도 구별할 수 있다는 Parke(1989)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들도 어머니만큼 아기가 표현하는 여러 신호의 유형을 해석하는데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아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돌보고 자 하는 바람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Gerson, 1997) 자녀에 대한 영향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이 영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알 필요가 있다.

2.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1) 상호작용의 개념 및 특성

상호작용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물·현상이 작용하여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일로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과정이다. 즉,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맺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의 개체는 사람, 사물, 현상 등을 일컫는다(박찬옥, 구수연, 이옥임, 2010). 또한 상호작용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 현상이 작용하여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일로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과 대상은 상호작용, 상호연관 속에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연결을 맺고 있다(유아교육사전, 1999).

Piaget, Vygotsky 등의 학자들은 영아 발달과 교육에 대한 원리를 상호작용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영아의 학습과 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써 영아가 물리적 혹은 사회적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해가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Mueir 와 Lucas(1975)는 출생에서 2세까지의 상호작용은 일정한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대상중심단계로 이때의 아동들은 상호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대개 그들의 주의가 다른 아동들보다 대부분 인형이나 대상물로 향한다. 두 번째는 단순상호작용 단계로 아동들이

또래의 행동에 반응을 더 보이며 가끔 다른 아동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시도한다. 세 번째는 상보적 상호단계로 이 시기는 더욱 더 복잡한 순서의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진다(김난실, 2004, 재인용). 따라서 영아의 상호작용은 인형이나 놀잇감 등의 사물중심에서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부모나 또래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발달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영아는 양육자에게 울기, 응시하기, 미소 짓기 등으로 자신의 호기심, 욕구 등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지만(권혜진, 1996) 언어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12개월 이후부터 영아의 상호작용은 점차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차례 바꾸기, 공동 주의집중, 상황적 문화적 관습과 같은 비언어적 측면과 함께 이루어진다(Vygotsky, 1962; 이선희, 2010에서 재인용). 즉, 상호작용과정에서 영아의 언어는 상황, 동작 등과 결합되어서 비로소 성인에게 이해를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성인의 언어도 비언어적인 요소와 결합되어야 영아에게 이해되어진다(김재은, 1991).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은 신체, 목소리, 공간과 관련되며 손 흔들기, 안기, 손으로 가리키기, 웃기 등과 같은 신체적 언어와 운율, 목소리의 고저, 강약, 멈춤 등과 같은 목소리는 의사전달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곽승주, 2003) 이상과 같이 영아의 상호작용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에 강하게 의존되는 특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되므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회는 영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의 특성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부모 역할 분담형태에서 자녀양육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늘고 부모 역할에 있어 공동 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아버지 역할이 어머니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이순희, 2003).

인간은 처음 태어나 만나게 되는 물리적, 인적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한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초기 경험은 그들의 신체, 지능, 성격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분만 후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의 조기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산욕기 초기는 아버지가 신생아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확인되어 왔다(Klaus & Kennell, 1976).

Lincoln(1984)은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이란 아버지에게서 보여 지는 애착형성의 결과이며, 점차 아버지들이 영아의 신체적인 돌봄에 있어 눈에 띄게 관여하고 있고 정서적인 생활에서도 더욱 많이 참여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아버지도 자녀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경험적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영아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애착 행동들은 어머니에 의해 보여 지는 애착행동들과 비슷하며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아버지의 영아에 대한 애착행동은 어머니의 경우와는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에 속하는 것으로 아버지는 돌봄 상황에서 보다는 놀이 상황에서 애착행동을 더 많이 보임으로써 영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적 피드백을 통해 여아를 돌보는 역할에 익숙해진다(Bowen & Miller, 1980; Lamb, 1981; Yogman, 1982; Wieser & Castiglia, 1984).

그리고 영아와 부모간의 상호관계를 관찰한 Lamb(1976)의 연구에서 아기와 어머니, 아버지와 상호작용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짹짹을 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아주어 사회화를 돕고 아버지는 아기를 활발하게 하고 신체적으로 자극적인 놀이나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아주는 것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아기의 환경에 대한 탐구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자주 안아주지만, 아버지는 아기가 안아주기를 원할 때나 같이 놀아 주기 위해서 가끔 안아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기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아버지와 영아의 관계는 이후 자녀의 성장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영아의 성역할 발달과 인지, 사회, 정서, 도덕성 등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 한 연구결과로서, 아일랜드의 노동계층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버지의 영아기 자녀 양육에 참여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1년 동안 영아의 인지 발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Nugent,1991).

아버지의 상호작용 행동은 어머니의 것과는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주로 안아서 올리는 것 같은 신체적이고 자극적인 놀이를 많이 함으로써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의 놀이와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는 역할 놀이 등을 통해 유아를 사회화시키는 반면 아버지는 활기찬 신체적 자극이나 예상할 수 없는 놀이 활동으로 유아를 고무시켰고 어머니는 돌보는 상황에서 주위환경을 살피고 통제하기 위해 유아 행동을 억제하는 반면, 아버지는 자녀와 놀기 위해 어머니와 다른 양상으로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였다. 유아의 인지적 능력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기여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른 형태의 놀이를 제공하고 자녀의 독립성에 대한 기대를 함으로써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는 자녀의 인지발달 수준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e, 1981).

아버지의 상호작용 행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비교해 본 김영신(2004)의 연구에서도 0세 영아와의 놀이에서 소극적, 적극적 신체놀이는 아버지가 많이 하고, 음성, 관습적 놀이는 어머니가 많이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신체놀이를 더 유도하고 어머니가 언어적이고 전통, 관습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영아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아버지들에게 알려주고, 격려를 해 줌으로써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을 돕고 이를 통해 아버지들의 영아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애착은 대략 6-9개월경에 시작되어 12-13개월 정도면 부모 모두에 똑같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다. Parke(1975)는 아기가 아버지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기의 기저귀를 1주일에 몇 번 갈아주었는가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아기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는 애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차은주(1986)는 아버지와 아동과의 애착형성에 대한 연구에서 신생아시기에 아버지와 유대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은 성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영아의 초기 발성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만져주면서 반응하고 아버지는 소리를 내어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아동은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받아 의사소통의 기술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학습이 되며 이러한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화영(1993)은 밝혔다. 즉, 영아들은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와는 다른 질적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언어 등에 의한 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충 받게 된다 (Lamb & Parke, 1981).

또한, 영아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양적으로 참여가 적고 놀아주는 형태는 분명 다른 점이 있지만, 부모-영아의 상호작용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고 영아의 행동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아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익숙하고 일상적이지만, 이와 반대로 아버지와 관

계는 짧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인상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아에게 어머니보다 더 인상적인 사람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영아 2명과 영아의 아버지 2명이며, 연구자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영아와 아버지 간의 상호작용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참여를 수락한 아버지들이 바쁜 일과로 인한 시간 부족과 육체적·정신적 피곤함, 그리고 심적인 부담감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연구 참여가 가능한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대상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온이와 아버지

지온이는 2010년 3월 23일생 여아로 영아가 7개월 되는 시점에서 연구에 참여하여 13개월에 마쳤으며, 형제가 없는 외동딸이다. 하루 중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영아의 엄마가 대학원에 재학 중이므로 격주로 주중 하루 이틀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낸다. 엄마가 없어도 외할머니를 잘 따른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하루 일과는 반복적이다. 지온이의 평균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 지온이의 평균하루 일과 >

시간	일과	시간	일과
09:00~09:30	기상	14:30~16:00	낮잠
09:30~10:00	아침식사	16:00~18:30	놀이
10:00~12:00	놀이, 간식	18:30~19:30	저녁식사
12:00~14:00	놀이, 점심식사	19:30~21:00	놀이
14:00~14:30	놀이	21:00~	취침준비, 취침

일과는 음악을 들으며 노래 부르기, 놀잇감 가지고 놀기, 엄마랑 예배드리기, 책 읽기, 산책하기 등이다. 하루 중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 아버지에게 관심을 많이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항상 책 보는 모습을 보이며, 음악을 듣고 몸을 흔들거나, 걸거나 기어서 구석에 숨기 등 신체활동을 좋아한다. 또한 인형을 가지고 안아주기, 토닥거리기, 뽀뽀하기, 코 채우기 등의 인형놀이도 즐겨한다. 영아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또래에 비해 순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고, 울거나 짜증을 부리기보다는 많이 웃는 편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평균보다 성장이 큰 편이며, 발달속도도 빠른 편이다. 생후 98일에 뒤집기를 했으며, 10개월+20일에 걸음마를 시작했다. 요즘은 말을 알아듣고, 두 단어 이야기를 한다.

지온이 아버지는 결혼 3년차이고,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현재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1녀이다. 나이는 만 34세, 학력은 대졸이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 직업군인이다. 학교 동기생들 가운데 결혼을 늦게 한 편이며, 자녀도 늦게 가진 편이다. 성격은 말이 많지 않으며, 모든 일에 있어 꼼꼼하며, 계획적이고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이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하루 일과는 오전06:00에 근무지로 출근하여 오후8:00에 가정으로 퇴근을 한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후10:00에 취

침을 한다. 한 달에 2-3번은 집으로 퇴근을 하지 않는 야간근무를 하며, 근무지 비상시 상시 시간에 상관없이 대기하여 근무지로 출근한다. 가정으로 퇴근을 하면 제일 먼저 영아에게 눈 마주침을 통해 아빠가 왔음을 알리고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외출을 하거나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 연구가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는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아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 서윤이와 아버지

서윤이는 2009년 12월생 여아로 영아가 17개월 되는 시점에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형제가 없는 외동딸이며, 가족 구성원은 지금은 이사를 하여 아버지, 어머니, 서윤이 이지만, 연구할 당시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서윤이가 있었으며, 아버지는 일로 인해 주말에만 집에 온다. 하루 중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연구 당시에는 어머니가 일을 하는 관계로 주말에 7시간이상 외출하여 성악 레슨 하는 일을 하였고 지금은 둘째 아이 임신으로 일을 쉬고 있다. 일을 할 때는 거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가 없을 때에는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과는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윤이는 아버지와 매우 친하게 잘 놀지만, 가끔은 아버지가 텔레비전 시청을 할 때면 서윤이 혼자 알아서 놀이하거나 어머니에게 간다. 그리고 연구 당시 같이 사셨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손자가 두 명이고 손녀는 서윤이 뿐이라서 많이 예뻐하셨고 서윤이의 성격이 순하고 애교가 많아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였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하루 일과는 반복적이다. 서윤이의 평균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 서윤이의 평균하루 일과 >

시간	일과	시간	일과
08:30~09:00	기상	14:00~14:30	점심식사
09:00~09:30	TV시청	14:30~16:30	놀이, 간식
09:30~10:00	아침식사	16:30~19:00	저녁식사
10:00~12:00	놀이, 간식	19:00~21:00	놀이
12:00~14:00	놀이	21:00~	취침준비, 취침

일과 중에 놀이는 책읽기, 역할놀이(선생님놀이, 의사선생님 놀이),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 놀이터가지, 요리하기, 교구나 장난감 가지고 놀기(장난감은 인형보다는 자동차나 자석 블록을 좋아함), 하루에 30분정도 DVD시청 등이다. 그 중에서 책을 보고 다 본 책을 쌓아놓는 것, 노래 부르기, 그네타기, 아빠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서윤이는 매일 낮잠을 자지 않고, 평균 일주일에 2일 정도 자는데 평균 시간대는 오후4:00~6:00사이이며 낮잠을 잘 경우에는 저녁11:00를 넘어 잔다. 서윤이는 낮가림을 100일 때부터 시작하여 심한 편이었는데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기, 외출 자주하기 등으로 극복하였고 평소에는 울음이 짧은 편이나 무안한 일이나 감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는 심하게 울며, 서정적인 음악 선율이 나올 때도 서럽게 우는 것을 보면 좀 예민한 듯 하다고 한다. 서윤이의 신체 발달은 소근육이 발달한 편이고 대근육은 보통이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키는 매우 큰 편이고, 몸무게는 표준치 정도이다. 서윤이의 언어 사용 수준은 의사선생님께서 말이 빠른 편이라고 하였으며, 8개월쯤 아빠 엄마를 하였고 지금은 다섯 단어 이상 연결하여 의사전달을 하여선지 돌전부터 쉬운 말들은 알아들었고 자주 불러주던 노래를 14개월 정도부터 쉬운 노래 따라 부르기를 시작하여 지금은 20곡 정도의 노래를 혼자서 부른다. 대변을 15개월쯤부터 ‘똥짜’라는 말로 표현하여 가리기 시작 하였다.

서윤이이 아버지는 결혼 4년차이고,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현재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1녀, 그리고 아내가 임신 중이다. 나이는 만 34세, 학력은 광주과학기술원 박사 졸업이며, 현재는 LG생산기술원 선임연구원이다. 성격은 온순하고 잘 웃는 성격이지만,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아내가 느끼기에 좀 무서울 때도 있다고 한다. 또한, 자기 일에 있어 계획적이고 집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서윤이 아버지의 평균 하루 일과는 오전6:30에 근무지로 출근하여 오후8:30에 가정으로 퇴근을 한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전12:00에 취침을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야근을 하여 오후10:00~11:00에 퇴근을 한다. 자신의 보물 1호가 서윤이라 할 정도로 딸 사랑이 지극하며 집에 있는 시간에는 가사일과 서윤이와 놀이를 물론이고 서윤이에게 관련된 일은 자처하여 거의 다 도와주는 편이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서윤이와의 외출을 좋아하고 평소에 영아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려고 하며, 되도록 영아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아버지는 자신이 영아와 하는 상호작용이 올바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 자료수집

1) 참여관찰

영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언어로 상세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른 맥락적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와 그를 둘러싼 일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역동적으로 탐색하여 연구 참여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Bogdan & Biklen, 2003).

참여관찰은 예비관찰과 본 관찰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관찰은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주 2-3회, 1회 30분-60분 동안 지온이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일상생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예비관찰을 통해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과정 및 특성, 아버지들이 느끼는 어려움,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사건 등을 파악하였다. 예비관찰을 기초로 본 연구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지온이와 아버지를, 2011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주 2-3회, 1회 30분~60분씩 서윤이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본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관찰은 되도록 영아가 연구자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실시하였고 관찰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며 연구자가 궁금한 점이나 특이한 부분은 표시하여 다음의 관찰에 참고하였다. 아버지의 상호작용 내용과 아버지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의 반응, 연구자가 느끼는 아버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궁금한 것, 관찰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나 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후 기록한 것들은 현장 노트(field notes)화하여 전사를 통해 자료화하였다. 현장 노트에 기록된 자료는 당일 바로 전사하고 전사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며 각각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연구자의 생각과 느낌 등을 기록하여 전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였다.

2) 연구 절차

(1)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

본 연구는 영아와 아버지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과정을 살펴

보며 아버지가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아버지가 느끼는 어려움을 어떻게 원활히 해결해 나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영아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영아가 있는 가정을 찾던 중 주변에서 연구 승낙을 하여 지온이와 아버지는 2010년 10월부터~2011년 4월까지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예비 참여 관찰을 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과정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보임으로써 연구에 대한 가능성에 확신을 가졌고 따라서, 다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즉, 같은 연령대의 다른 연구 참여자를 제외하여 연구 의뢰를 하였고 자녀 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아의 아버지의 승낙을 받고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는 2명의 영아와 2명의 아버지로 연구자의 연구 필요성과 아버지들의 자발적 참여의지의 합치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2) 심층면담

영아-아버지간의 상호작용 후에는 참여관찰 기록이나 영상을 보며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완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인 아버지와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상황과 상호작용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연구자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상호작용 시 느끼는 어려움이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아버지의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메모와 촬영 자료를 보면서 상호작용의 변화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한 방법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여 나갔다. 아버지와 심층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전사화 하였다. 면담은 총 21회(지은 아버지 11회, 서운아버지 10회)로 1회당 20~30분 동안 실시하였다.

(3) 저널쓰기

참여관찰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느낀 아버지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저널 쓰기를 실시하였다. 이 저널 쓰기는 아버지의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아버지들이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나 생각, 느낌을 써 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연구자 또한 관찰되지 않은 다양한 상황과 아버지들의 생각과 느낌을 저널로 통해 자연스럽게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어 동조하게 되었다. 특별한 분량은 정하지 않고, 아버지들이 자율적으로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저널은 A4용지 11장이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아버지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생각과 느낌 등을 기록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4) 비디오 촬영 및 녹음

참여관찰을 할 때 함께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지 못할 때는 녹음기를 사용하여 영아-아버지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녹음하였다. 비디오를 촬영하다가 영아의 위치가 비디오를 벗어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녹음하는 것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영아-아버지에게 비디오를 고정시켜 일상생활에서 상황의 상호작용 장면을 자연스럽게 촬영하였다. 비디오를 촬영한 날에는 촬영한 내용을 면밀히 탐색하며 전사하고자 하였다. 전사과정에서 탐색되는 의문 사

항이나 특성 등에 대한 메모를 통해 다음의 참여관찰이나 면담 시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하고 자료 수집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촬영도중, 영아의 위치가 비디오를 벗어나면 녹음기를 사용하여 영아-아버지의 상호작용을 녹음하고 중간 중간 상황을 체크하며 메모하여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3. 자료의 타당도 작업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성 개념은 양적 연구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으로 타당도 작업에 대한 일련의 학자들의 제안을 참고로 타당도 작업을 실행하였다. Wolcott(1994)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이란 사실의 발견이나 궁극적인 대답을 추구하기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좀 더 풍부한 해석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Marriam(1998)은 타당성과 신뢰성의 준거로 해석의 왜곡 방지와 래포의 형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관찰, 삼각측정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심층적 기술, 참조 자료(사진, 비디오 등)의 사용,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작업, 연구 국면에 대해 계속 묻고 평가하는 자기 감시 과정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뢰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삼각 측정법

본 연구는 연구방법의 트라이 앵글레이션으로 -참여관찰, 심층면담,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아버지의 저널 쓰기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해석의 판단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 참여자이면서 정보 제공자인 아버지에게 저널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검토를 거침으로써 자료의 의미와 분석에 대한 왜곡을 피하고자 하였다.

3) 심층적 기술-세부적 묘사

본 연구자는 세밀한 묘사를 위해 가능한 관찰 기록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남기도록 했으며 세부적인 묘사를 위해 행동이 일어나는 전과후의 맥락적 정보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4) 참조자료의 사용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참조 자료로 비디오 촬영과 녹음을 통해 연구자의 현장 기억을 보조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았다.

5)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논의해 보기

연구자의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들에게 조언과 비평, 새로운 견해를 제시 받음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도록 하였다.

6) 자기반성 과정

자기반성은 연구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편견이나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주관적으로 대상자들의 의미를 단정 짓지 않으려 하였다.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11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참여 관찰 때 기록된 현장노트(field note), 면담 내용, 비디오 촬영 자료와 녹음 자료, 저널이다. 참여관찰 기록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비디오 녹화를 보며 기록하고 영아-아버지와의 상호작용 시 중간에 보조역할로 개입한 부분이나 연구 참여자인 아버지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물어보고 기록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에 비디오를 촬영하며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사실 확인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내부자검증(Lincoln & Guba, 1985)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문헌에 대한 검토와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수시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Spradley, 1980). 즉, 현장 노트에 메모된 자료와 녹음된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전사하여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단어나 문장, 다양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연구자의 느낌 등을 메모하고 약호화하여 즉각적인 예비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전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즉, 관찰하는 과정도중 연구자의 의견을 자주 기록하였고 전사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토대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연구일지에 따로 표시를 하여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느낌이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사실 확인을 위해 아버지와 면담을 하거나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초점을 맞춰 나갔다. 또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좀 더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의 과정을 반복하면서(LeCompte & Preissle, 2003) 연구자는 자료 수집의 계속적인 부분으로서 모든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탐색과정을

통해 연구문제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Wolcott, 1994) 이러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관찰되는 현상들과 이론의 연계를 통해 범주화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와 검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연구의 관점을 생각해보며 다양한 생각들을 제공받고 지도 받았다.

IV. 결과 및 해석

1.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어려움.

1) “무얼 원하는지 모르겠다.” : 영아 의도 파악의 어려움

영아의 아버지들은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 영아의 언어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으므로 영아의 말을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다. 이 시기 영아의 말은 울음, 웅얼이, 몸짓말, 한 단어 문장, 두 단어 문장으로 나타나는데 하루 종일 영아와 함께 지내는 어머니는 영아의 하루 일과의 패턴을 익히며 생활하고, 하루 종일 끊임 없는 몸짓과 언어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영아의 말과 의도하는 바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들은 영아와 함께 지내며 부딪치는 시간이 적으므로 영아의 언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1>

아빠: 하나. 둘. 셋. 넷. (영아도 같이 “둘. 셋. 넷.”)

(영아와 아버지가 같이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송아지를 부른다.)

영아: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아빠~”

(가사에 아빠하는 순간 영아가 “아빠아빠”한다.)

아빠: “아빠하고?”(갑자기 어젯밤 꿈속에서~하며 다른 노래를 부른다.)

영아: (아빠의 노래를 듣고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피아노를 치며 부른다.)

(노래를 다 부르고 아버지를 보며) 따도따도.

아빠: 따도? 따도? 뭐지?(엄마를 쳐다본다.) 따도? 따도가 뭐지? 뽀뽀 할까?

(영아와 아버지가 같이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뽀뽀뽀를 부른다.)

영아: (노래를 다 부르고 아빠를 쳐다보며) 나똥나똥.

아빠: 나똥? 나똥? 뭐지? (엄마를 쳐다본다.) 나똥?

서윤이가 먼저해봐. 아빠가 따라할게. 하나. 둘. 셋. 넷..

영아: (하나.둘.셋.넷.을 하더니 멈춰서 아빠를 쳐다본다.)

아빠: 나똥? 나똥가 뭐야? 나똥? 나똥가 뭐지? 나똥?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5. 14)

위의 <사례1>에서 보듯이 영아와 아버지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 부르기 활동하였다. 노래를 부르는 도중 영아가 아버지에게 “따도따도”라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더니 뽀뽀뽀 노래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이어갔다. 그러나 영아가 다시 “나똥나똥”하고 다른 요구를 하였고, 영아의 요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영아가 먼저 무언가 하기를 요구하지만, 영아는 계속 반복되는 언어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영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영아에게 반복되는 질문을 하였고 영아는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머니에게로 향하면서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끝이 났다.

<사례 2>

아빠: 생일축하합니다. 우와. 박수. 후~(영아와 피아노를 치며 생일축하를 부른다.)

영아: 후~~(촛불 끄는 흥내를 낸다.)

아빠: 우와. 또 모할까? 서윤이 노래. 노래하고 싶어? 그래. 무슨 노래 할까? 서윤이.

영아: (아빠를 보며) 때또. 때또.

아빠: 때또?

영아: 두어나. 두어나.

아빠: 두어나? 무슨 노래야?

영아: (영아가 답답한지 피아노를 두드린다.) 바빠빠.

아빠: 바빠빠?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5. 28)

위의 <사례2>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아의 아버지는 영아가 하는 말 “때또”, “두어나”, “바빠빠”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영아에게 반복적으로 묻지만, 아버지는 영아의 말 자체에 대한 해석만을 시도함으로써 영아의 의도 파악에 실패하였다. 실제로 영아의 말은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 보다는 비슷한 말을 흉내 내고 있는 단계로 영아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맥락적인 이해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영아의 말 자체만을 해석하고자 함으로써 더 이상 상호작용을 지속시키고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영아의 놀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영아가 원하는 놀이 방법을 잘 몰라 영아의 흥미를 지속시키지 못하여 상호작용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3>

영아: (아버지에게 블록을 하나씩 가지고 온다.)

아빠: 지운이 블록 놀이 할까?

(블록 모양 상자에 블록을 끼워 맞추며) 여기에 끼워볼까? 별모양. 세모. 네모.

영아: (블록이 상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인상 쓰며 다른 블록을 아버지에게 준다.)

아빠: 이번에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는 어떤 모양에 들어가지? 동그라미모양.

영아: 잉잉~~(소리를 내면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아빠: 동그라미 모양 아니야? 그럼 무슨 모양이지? 이거 동그라미 모양 맞는데.

지운이가 끼워볼래? 여기 동그라미모양 맞아.

영아: (블록 상자를 흔든다.)

아빠: 블록 다시 꺼내줘?

영아: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꺼낸 블록을 다시 하나씩 아버지에게 준다.)

아빠: 이번엔 세모모양이네. 여기에 지운이가 끼워봐.

영아: (아버지 손에 있는 블록을 뺏는다. 그리고 블록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간다.)

엄마: 지운이 엄마 블록 줬어요? 블록을 어떻게 할까?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탑을 만든다.)

영아: (영아는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다시 블록을 하나씩 전달해 준다.)

엄마: 하나, 둘, 셋, 넷...(영아가 준 블록으로 높게 탑을 쌓는다.)

영아: (탑을 보며 박수를 치며 소리 내어 웃는다.) 깔깔깔~

아빠: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참.. 근데 당신을 어떻게 알았어?

(지운이와 아버지 관찰. 2011. 2. 12)

위의 <사례3>에서 보듯이 영아와 아버지는 블록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시작되었다. 영아와 아버지가 놀이하는 블록은 블록 상자에 모양을 끼워 맞추는 놀잇감이었다. 영아는 아버지에게 블록을 하나씩 가져다주었고 아버지는 놀잇감의 사용 방법대로 영아가 준 블록을 모양에 맞추어 블록 상자에 넣어보지만 영아는 계속 인상을 쓰거나, 소리를 내며 블록 상자를 흔들면서 아니라는 표현을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아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블록의 모양을 맞추어 끼우기를 계속 하였다. 영아는 급기야 블록을 어머니에게 주었고 영아의 어머니는 “블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기차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쌓아보기도 하면서 영아의 의도에 적절한 답을 알아내려고 시도하였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영아의 아버지는 영아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영아가 원하는 것을 알았는지 궁금해 하였다.

또한, 영아의 아버지는 영아와 상호작용 할 때, 영아에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그때 아버지는 영아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무반응으로 대처하거나, 영아의 반응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여 다르게 반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사례4>

영아: 봄바람은~(영아가 봄바람은~하며 노래 부르는데 아버지가 꽃밭에는~하면서 다른 노래 부르니 영아의 노래가 멈춘다.)

아빠: 꽃밭에는 꽃들이...참새도 짹짹...

영아: (아빠가 두 손으로 번갈아가며 피아노를 치니 영아도 따라서 친다.
 갑자기, 영아 손 위에서 아빠가 피아노를 치니 영아가 아빠의 손을 민다.)

아빠: 아빠 하지마? (하면서 다시 영아 손 위에서 피아노를 치니)

영아: 아빠 하지마.

아빠: 아빠 하지마? 치워?

영아: 하지마. 여기 여기. (영아의 왼쪽을 가리킨다.)

아빠: 아빠 이쪽에서 하라고?

영아: 이쪽. 여기. 여기.

아빠: 아빠 이쪽에서 해? (영아가 등을 돌리자) 서윤이 이쪽에서 할꺼야?
 그래. 아빠 이쪽에서 할게. (같이 피아노를 친다.)

영아: (아빠가 피아노 건반을 영아의 손이 있는 곳까지 치니 영아가 아빠 손을 민다.)
 아부. 시러. 시러.

아빠: 치워? (아빠가 계속 피아노를 치니)

영아: 아!~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아빠 손을 민다.)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5. 8)

위의 <사례4>에서 보듯이 영아와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며 상호작용을 시작하였다. 영아가 부르고 싶은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는데 아버지는 영아의 노래를 듣고 다르게 해석하여 영아가 부르려고 했던 노래를 아버지가 알고 있는 다른 노래로 바꾸어 불렀고 영아는 부르려고 했던 노래를 멈추었다. 여기서 아버지는 영아의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는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가 영아의 손 위에서 피아노를 치니 영아는 하지 말라고 반응을 하는데 아버지는 영아의 반응에 대해 무반응으로 대처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해석하여 반응하였으며, 이에 영아는 계속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계속 영아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자 영아는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의 손을 미는 행동으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사례5>

영아: (과학 동화를 만지며) 이거 이거.

아빠: 그거 할꺼야?

영아: 응.

아빠: (롤리코스터를 들고 이동하려고 한다.) 가자. 아빠랑 이거로 놀자.

영아: (과학 동화를 만지며) 이거 이거.

아빠: 이거? 이거는 코 잠자고 있어. 지금. 과학 동화는 잠자고 있으니깐 내일하자.

영아: (과학 동화를 가리키며) 이거 이거.

아빠: 응. (롤리코스터를 가지고 거실로 이동한다.) 앉아.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12)

위의 <사례5>에서도 영아는 과학 동화를 가리키며 읽어달라고 표현하지만, 아버지는 영아의 표현과 상관없이 롤리코스터를 가지고 놀자고 영아에게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영아는 계속해서 과학 동화를 가리켰고, 아버지는 영아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롤리코스터를 가지고 거실로 가서 앉았다. 이와 같이 아버지들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관심과 흥미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아버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에 영아가 따라오기를 바라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영아들을 화가 나게 하거나,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영아의 말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상호작용을 시도함으로써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상황을 잘 탐색하고 영아의 몸짓과 표정 등을 살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영아가 하는 ‘언어’ 그 자체만을 해석하려고 함으로써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6>

아빠: (노래부른다)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영아: (노래 부르는 아빠를 쳐다본다. 색연필은 만지다가 안 나오는 색연필을 보고)

아빠 꺼 아빠 꺼.
 아빠: 아빠꺼야? 아빠꺼 주세요.
 영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빠꺼.아빠꺼.
 아빠: 아빠꺼야? 응, 이건 아빠꺼.
 영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빠아빠.
 아빠: 아빠꺼야? 응, 이건 아빠꺼. 아빠꺼다.
 영아: (색연필을 가리키며 색연필이 나오지 않음을 표현한다.)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11)

위의 <사례6>에서 영아는 색연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색연필을 가져다주며, 색연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지만, 아버지는 영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아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영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색연필이 나오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도를 아버지에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영아의 의도를 계속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해석한 대로 영아에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례7>
 영아: (영아의 공을 친구에게 빌려주자 칭얼거리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아빠: 친구 빌려주자!
 아빠: 서윤이 예쁘지. (영아 발에 흙이 닿지 않게 땅에 있는 흙을 옆으로 치워준다.)
 (그네를 탄다.) 서윤이 발 들어. 서윤이 발 드세요. 서윤이 땅에 발 안 닿게.
 쉿웅~쉿웅~쉿웅~쉿웅~쉿웅~
 영아: (친구가 가지고 노는 자기의 공을 가리키며) 공. 공공. 공.
 아빠: (아빠는 계속 그네를 밀어준다.)
 영아: 저거 저거.
 아빠: 서윤이 그만 탈꺼야?
 영아: 응. 저거 저거.
 아빠: (영아를 그네에서 내려준다.)
 영아: 저거 저거.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5)

위의 <사례7>에 영아는 친구에게 빌려준 공이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며 오로지 공에 집중 되어 있었다. 영아는 아버지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지만, 마음은 온통 공을 향하고 있었다. 영아는 공을 가리키며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 하지만, 아버지는 그네를 밀어주는데 집중을 하여 영아의 반응에 대해 무반응으로 대처하고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상호작용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영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상태가 변한다. 신나게 즐겁게 잘 놀다가도 갑자기 짜증을 부리거나, 울기도 하고 잠이 오거나, 배가 고프거나, 응가를 했을 때나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변화가 많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영아의 감정을 파악하여 영아가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영아를 달래며 영아의 감정에 즉각 반응하며 상호작용을 해준다. 하지만, 아버지는 순간에 나타나는 영아의 감정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이 부족해 보였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일 때 아버지는 영아의 감정처리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8>

아빠: 가서 친구하고 놀아. 친구하고.

영아: (친구가 놀고 있는 자신의 공을 손으로 만진다.)

아빠: 서윤이가 뽕 차. 서윤이. 뽕 차! 발로 뽕 차. 친구한테 발로 뽕 차. 친구한테.

영아: (공을 가지고 아빠에게 온다.)

아빠: 친구한테 발로 뽕 차줘.

영아: (공을 가지고 아빠 앞으로 와서 기댄다.)

아빠: 봐봐. 아빠바바. (공을 영아의 손에서 뺏으려 하자)

영아: 아! (소리 지른다.)

아빠: (영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구랑 해야지. 친구랑.

영아: (아빠에게 공을 주며) 아빠아빠.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친구한테. (친구쪽으로 공을 찬다.) 우와~

영아: (아빠가 찬 공을 영아가 다시 가져와서 아빠 옆에 신다.)

으~응(몸을 비틀며 얼굴을 찌푸리며 싫다는 표시를 한다.)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26)

위의 <사례8>에서 볼 수 있듯이 옆에 있던 친구가 공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자 아버지는 영아에게 친구와 함께 공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영아의 의도는 달랐다. 영아는 친구와 공을 같이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공을 친구와 같이 가지고 놀게 하기 위해 영아의 손에 있던 공을 뺏으려하자, 영아는 소리를 지르면 공을 지켰다. 아버지는 영아의 감정에 대해서 상호작용하지 않고 친구와 같이 놀이하도록 친구에게 공을 줬다. 하지만, 영아는 속상해 하며 공을 다시 가져왔다. 아버지는 영아의 감정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친구와 같이 놀이해야 한다고 영아에게 상호작용하였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친구의 의도에는 반응하면서 정작 영아의 감정은 신경 쓰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영아들의 순간적인 감정표현이나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영아와 상호작용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사례9>

아빠: 지운아! 인형가지고 놀까? 토끼야! 안녕.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난 안지운이라고 해. 지운이 안녕. 난 지운이 아빠야.

영아: (잠깐 인형에 관심을 갖더니 인형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웃는다.)

아빠: (영아의 반응에 신이 나서) 지운이 기분 좋아?!. 아빠기분도 좋아.

(잠시후,)

영아: (영아가 짜증을 부린다.)

아빠: 안지운 왜 그러는거야? 안지운! 안지운! 안지운! 짜증부리면 안 되지.

여보! 지운이 짜증낸다. (영아를 아내에게 데려다 준다.)

(지운이와 아버지 관찰. 2010. 11. 18)

위의 <사례9>에서 아버지와 영아는 인형놀이를 하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아버지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놀이를 하는데 영아가 기분 좋은 반응을 보이자 아버지도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아의 기분을 맞추려 하였다. 하지만, 영아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짜증을 부리는 순간, 아버지는 당황해 하며 영아가 왜 짜증이 났는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생각하고 달래기보다는 영아에게 짜증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아내를 찾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례10>

아빠: (산책 준비를 한다.) 지운아! 점퍼 입자.

(아무 말 없이 영아에게 점퍼를 입힌다.)

영아: (점퍼에 팔을 끼우는데 불편한지 짜증을 부리며 입지 않으려 한다.)

아빠: 여보! 지운이 짜증낸다. 얼른 와서 점퍼 입혀봐.

(어머니가 지운이의 점퍼를 입혔다.)

(중간생략)

아빠: (산책을 하던 중.) 지운아! 밖에 나오니깐 좋지? 시원하다.

(유모차를 끌며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영아: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아빠: 안지운! 왜 그래? 안지운!

영아: (계속 운다.)

아빠: 지운이 왜 울어? 왜 그러지? 안지운. 왜 그래? (아내에게) 지운이 달래봐.

(어머니가 지운이가 배가 고팠는지 물을 주니 울음을 그쳤다.)

(지운이와 아버지 관찰. 2010. 10. 30)

위의 <사례10>에서도 산책을 위해 영아에게 옷을 입히는데 영아가 짜증을 부리며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자 영아가 왜 짜증을 부리는지, 영아의 불편함은 무엇인지 찾거나, 달래기보다는 바로 아내를 찾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나타난 영아의 감정표현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기분 좋게 유모차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영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당황하여 영아의 이름만 부르고 영아가 왜 우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거나, 영아를 달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의 울음에는 배가 고파서 울거나, 불편해서 울거나, 졸려서 우는 등 영아만의 다양한 감정 표현인데 아버지는 영아의 감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아내를 찾는 모습이 나타났고 아버지는 영아의 감정처리에 대한 대처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2) 영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언어사용의 어려움

아버지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말이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 하거나, 같은 말인데 문장의 순서나 단어들만 바꾸어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 하였다. 또한 영아 아버지는 영아와 상호작용할 때 평소의 말투와 일정한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영아의 흥미를 떨어뜨렸으며 이는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사례11>

아빠: 서윤아 이걸 뭘까? 이걸 뭘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서윤아?

영아: (기린인형에 있는 것을 만지며) 안어.안어. 안어안어.

아빠: 안어안어안어? 아~ 단추 이렇게 넣는 거였어? 우와. 서윤이 똑똑하다.

단추 이렇게 넣는 거였어? 이렇게? 서윤이가 넣어봐. 우와.

(영아와 함께 단추 끼우기를 한다.) 자~~

영아: 이거이거이거.

아빠: 이렇게. 자~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다 되어 있네! 이것도 되어 있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우와! 기린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영아: (다른 인형을 가리키며) 인형 또.

아빠: 인형 또? 정리해야해. 이제. 놀았으니깐. 그래. 없어 이제.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6)

위의 <사례11>에서 아버지와 영아는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며 상호작용하였다. 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에서 보면 “이렇게” 라는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며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아버지가 영아에게 “이렇게” 라는 말 대신, 설명되어지는 상황이나 행동을 말로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주거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과 행동만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단어와 문장으로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상호작용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아 아버지들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여 당황하여 영아에게 부적절하며 올바르지 못한 문장 구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2>

아빠: 음...(영아를 보며) 우리 뭐할까? 서윤이 노래할까? 어떤 거?

서윤이 하고 싶은 거? 어떤 거야? 없어? 하고 싶은 노래.

나비나비 개나리 할까? 생일 축하할까?

하나. 둘. 셋. 넷. (영아도 같이 “둘. 셋. 넷.”)

(영아와 아버지가 같이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생일축하를 부른다.)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우와...박수...후~

영아: 후~~(촛불 끄는 흉내를 낸다.)

아빠: 우와. 또 뭐할까? 서윤이 노래.

노래하고 싶어? 그래. 노래할까? 무슨 노래? 서윤이.

영아: (아빠를 보며) 때또. 때또.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5. 28)

<사례13>

아빠: 서윤이 아빠랑 놀이기구 뭐 탔지? 서윤아. 아빠랑 어떤 거 탔지? 놀이기구?

영아: (색연필 통을 흔들면서 짜증을 부린다.)

아빠: 서윤아, 놀이기구 기억 안나? 응? 시소

영아: 시소!

아빠: 시소 탔지. 서윤이 아빠랑. 또 뭐하고 탔지? 아빠랑

영아: (색연필을 통에 넣으며) 따따따 따따따.

아빠: 따그락따그락 따락. 응. 말 탔지. 아빠랑. 말을.

영아: (색연필을 통에 넣으며 소리를 내며 흥얼거린다.)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7. 17)

위의 <사례12>에서는 아버지와 영아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아버지가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할 때, “서윤이, 노래할까. 어떤 거”, “또 뭐할까. 서윤이 노래”, “노래할까? 무슨 노래? 서윤이” 이라고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영아에게 상호작용한 문장을 보면 문장의 구조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의 순서가 바뀌어 상호작용하니, 영아는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영아에게 순간순간 질문하고 답하는 상호작용과정에서 바른 문장의 구조로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사례13>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아와 아버지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버지의 상호작용에서 문장의 구조가 올바르지 못하니 영아의 대답이 없거나,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야기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례14>

아빠: 서윤아. 공! 서윤아. 공! (공을 영아에게 발로 찬다.)

영아: (영아는 말을 만지고 있다.)

아빠: 서윤아. 공차. 공.

영아: (아빠를 가리키며) 아빠아빠.

아빠: 아빠는 찻잖아. 아빠는. 서윤이가. 공!

영아: (영아는 다른 곳으로 간다.)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26)

위의 <사례14>에서도 영아와 아버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 순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올바르게 못한 문장의 구조가 나타났다. “아빠는 찾잖아. 아빠는. 서윤이가. 공!” 이라는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영아는 아무 대답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아버지와 상호작용에서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다른 행동을 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있어 아버지는 올바르게 못한 문장의 구조가 나타나는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황에 적절한 말투, 톤, 몸짓언어 등의 사용이 어색하였으며 이는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사례15>

아빠: 지운아. 아빠가 책 읽어줄게?

영아: (아버지 무릎에 앉는다.)

아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가를 사랑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가를 사랑해.

마음 깊은 곳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아가를 사랑해.

아가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아가를 사랑해.

(책내용-중략)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가를 사랑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아가를 사랑해.

(아버지가 혼자 책을 넘기며 책의 내용을 읽어준다.)

다 읽었다. 책읽기 끝!

(지운이와 아버지 관찰. 2010. 10. 10)

위의 <사례15>는 아버지가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아버지는 어떤 말투로 어떻게 동화책을 읽어 주어야 하는지 모른 채, 영아에게 한 권의 책을 읽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상호작용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영아의 반응도 살펴보고 책의 그림도 살펴보며, 영아가 흥미로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목소리 억양이나 말투에 변화를 주면서 책을 읽어주며 상호작용한다면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더 잘 이루어졌을 것인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책의 내용만 읽어 영아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례16>

아빠: 지운아. 아빠랑 노래 부를까?

영아: (아버지를 뺨히 쳐다본다.)

아빠: 곰 세 마리가 한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똥똥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또 뭐 불러볼까?

영아: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를 쳐다본다.)

아빠: 지운이 좋아? 그럼 다른 거 불러볼까?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동요집을 보면서 아는 노래를 찾는다.)

(지운이와 아버지 관찰. 2010. 9 26)

위의 <사례16>에서도 아버지와 영아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상호작용하지만, 아버지가 가만히 노래만 부르니 영아가 아무런 반응 없이 아버지를 쳐다 보았다.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면서 울동을 하거나, 노래에 맞는 말투와 억양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영아도 흥이 나서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도 영아의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보다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아버지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있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17>

아빠: 왜? 서윤이 왜? (영아 앞에 있는 책을 보며) 어 서윤이 이게 모아. 이게 모아.

우리 올리 볼까? 올리? 새 친구 올리 볼까?

영아: (올리라는 비슷한 소리를 내며 팔을 흔든다.) 올리.

아빠: (음을 넣어) 올리. 오올리. 올리. 친구 올리 볼까?

아기거위 올리네요. 아기거위 올리.

영아: (밥을 먹으며) 올리.

아빠: (음을 넣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서윤이 올리 좋아? 응?

영아: 어어 주세요. 아푸. 아푸. 이아. 으아. 잉잉잉(책을 보며 우는 흉내는 낸다.)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25)

위의 <사례17>에서는 아버지는 책을 보며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버지의 질문에 영아는 “올리” 라는 대답만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은 어색했지만, 평소와 다르게 말에 음을 넣어 다른 말투로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하니, 영아는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 어려움

아버지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행동이나 상호작용이 익숙해진 반면에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위한한 상황은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생기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하지만, 영아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없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하루에 일어나는 영아의 반응은 무한하다.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

거나, 표현을 한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어머니도 영아의 반응에 대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반복의 반복을 통해 어머니는 영아의 의도와 반응을 즉각 알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영아와 반복되는 상호작용은 자연스레 잘 이루어지지만, 순간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보였다.

<사례18>

(아버지와 영아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영아 앞에는 몇 권의 책이 있다.)

아빠: (영아에게 밥을 먹이며) 서윤아 밥 먹자. 냐냐.

영아: (아버지가 준 밥을 뱉고 인상을 쓴다.)

아빠: 뜨겁나? (밥을 조금 먹어본다.) 뜨거웠구나.(밥을 식혀 다시 영아에게 준다.)

영아: (고개를 돌리며 책을 본다. 책을 펴고 책속의 그림을 가리킨다.)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8. 6)

위의 <사례18>에서는 아버지가 영아에게 밥을 먹이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아버지는 밥을 한 수저 떠서 영아에게 주었는데 영아는 밥을 뱉으며 인상을 썼다. 영아의 반응에 아버지는 밥을 먹어보고 밥이 뜨거웠음을 알게 되었다. 영아는 처음에 아버지가 준 밥을 먹고 뜨거운 것을 알고서 두 번째 아버지가 준 밥은 먹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영아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함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보였다.

<사례19>

(욕실에서 영아의 옷은 다 벗은 상태로, 영아가 욕조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

아빠: 서윤이 발. 잠깐만. 기다려.

영아: (샤워부스에서 나오는 물을 만지며) 아 뜨거.

아빠: 서윤아. 아 뜨거. 아 뜨거. 서윤이 아빠가 해줄게요. 기다리세요.

영아: (아버지 옆에서 기다린다.)
 아빠: (욕조에 물을 받으면서)서윤아. 아 뜨거. 아 뜨거. 만지지마. 기다려.
 엄마: 아~그렇게 위험하게. 물을...
 아빠: (아버지는 계속 물을 받고 영아는 그 옆에 서 있다.)
 서윤이 아빠랑 물놀이 할 꺼야? 아직 안 돼? 물이 다 차야해.
 영아: 아직 아직. 아 뜨거. 아 뜨거.
 아빠: 아. 아 뜨거. 물이?
 영아: 아 뜨거. 아 뜨거.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7. 2)

위의 <사례19>에서 아버지는 영아를 목욕하기 위해 준비를 다 했지만, 물은 받아 놓지 못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샤워부스를 욕조로 향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받고 있는데 샤워부스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었다. 영아가 샤워부스에서 나온 물에 손을 데니 뜨거웠는지 “아 뜨거”하면서 손을 얼른 뺐다. 아버지는 영아에게 “뜨거워”라는 말만 하고 계속해서 물을 받았다. 옆에서 이를 본 아내는 물을 그렇게 위험하게 받느냐고 이야기 하였다. 영아는 옷을 벗고 목욕 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옆에만 서 있었다. 아버지는 물을 다 받고 목욕 할 준비를 마친 후에 영아의 옷을 벗기고 목욕 시킬 준비를 했어야 한다. 욕조에 받은 물이 뜨거운지 영아는 물이 뜨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이렇게 목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모습이 나타났다.

<사례20>

(아버지가 영아를 무릎에 비스듬히 앉히고 이를 닦는다.)
 아빠: 아빠가 서윤이 이빨 닦지. 우와~치카치카치카치카초코초코초코초코
 영아: (아버지의 얼굴을 만지며 장난친다.)
 엄마: 구석구석 닦아야해. 서윤이 장난 치지마. 아빠랑.
 아빠: 이~ 아~ 우와~

영아: (너무 깊게 닦았는지 헛구역질을 하려한다. 아버지의 품에 기댄다.)

아빠: (영아의 얼굴을 비스듬히 하며) 다시 해볼까? 아~

영아: 아~(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긴다.)

아빠: 쉼~(영아를 다시 비스듬히 눕힌다.)

영아: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긴다.)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7. 10)

위의 <사례20>에서는 아버지가 영아를 비스듬히 눕히고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를 닦아주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를 닦아주니 영아는 기분이 좋은지 깔깔 웃는데 순간 아버지가 칫솔을 영아의 입 속 깊게 넣었다. 이를 경험한 영아는 아버지가 이를 닦으려하면 입을 다물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을 반복하며 이 닦기를 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려워하였다.

<사례21>

아빠: 지은아! 안녕. 난 뽀로로야. 뽀롱뽀롱 뽀로로...

(뽀로로 인형을 가지고 영아에게 이야기 한다.) 지은이 냐냐 먹었니?

영아: (영아는 깔깔깔 소리 내며 웃는다.)

(잠시후.)

영아: (힘을 주며 응가를 한다.)

아빠: 지은이 응가 해? 여보! 지은이 응가 했어.

엄마: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는 중이다.) 기저귀 갈아줘.

아빠: 어떻게? 나 못해. 빨리 갈아줘. 지은이 앉아서 뭉겐다.

엄마: 그러니깐 당신이 빨리 갈아줘.

아빠: 못한다니깐!

(결국, 설거지를 하나가 멈추고, 어머니가 갈아주었다.)

(지은이와 아버지 관찰. 2010. 10. 16)

위의 <사례21>에서 아버지는 영아와 다양한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며 놀이하였다. 책도 읽고 노래도 부르고 인형 놀이도 하면서 영아의 적극적인 반응에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아가 응가를 하면서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바로 아내를 불러 영아가 응가를 했음을 알리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아내는 하던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기저귀를 갈아보라고 이야기 하지만, 아버지는 새로운 상황에 당황해하였으며, 아버지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상황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례22>

(아버지는 영아를 목욕시키기 위해 준비한다.)

아빠: 지온이 아빠랑 목욕하자. 지온이 옷도 벗고, 기저귀도 벗고, 우와~잘하는데.

영아: (아버지를 쳐다보며 웃는다.)

아빠: 지온이 물 만져볼까? (영아의 손을 물에 담구어 본다.) 따뜻하지?

영아: (손을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 소리 내어 웃는다.)

아빠: 아이~따뜻해. 따뜻하지? 지온이 몸 닦을까? (영아의 몸을 닦는다.)

영아: (아버지가 몸을 닦아주는 동안 장난감을 가지고 물놀이를 한다.)

아빠: 자, 지온이 이제 머리 감을까? (아버지는 영아를 안고 머리를 감긴다.)

영아: (머리를 감겨 주다가 물인지, 비누인지 눈에 들어갔는지 영아가 운다.)

아빠: 자기야. 지온이 눈에 비누 들어간 것 같아. 빨리 와봐. 빨리.

영아: (영아는 몸을 움직이며 계속 운다.)

아빠: (소리를 지르며) 빨리. 빨리 와봐.

(어머니가 와서 지온이의 얼굴을 씻었다.)

(지온이와 아버지 관찰. 2011. 2. 26)

위의 <사례22>에서 아버지는 영아와 목욕을 하기 위해 목욕 준비를 마치고 영아를 데려와 평소처럼 차분하게 목욕을 시켰다. 영아가 목욕하는 것을 좋아해선지 영아의 적극적인 반응에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목욕을 시켰다. 그런데 평소 목욕을 시킬 때와 다른 새로운 상황에 처하였다. 영아의 눈에 무언가 들어갔는지 영아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당황해 하며 다급히 아내를 불렀다. 영아가 계속 울자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 아내를 찾았다. 아내가 와서 상황은 마무리 되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부분을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4)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상호작용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에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는 자기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 영아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영아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도 많이 시도하지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영아의 반응이나 영아의 표현에 함께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오히려 아버지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영아의 대답이나 상호작용을 막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례23>

아빠: 우와. 서윤이 텔레비전 할까?: 하나. 둘. 셋. 넷. (영아도 같이 “둘. 셋. 넷.”)

(영아와 아버지가 같이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텔레비전을 부른다.)

우와. 서윤이 잘한다. 우리서윤이. 학교종이 땡땡땡 할까?

영아: 어

아빠: 하나. 둘. 셋. 넷. (영아도 같이 “둘. 셋. 넷.”)

(영아와 아버지가 같이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학교종을 부른다.)

우와. 박수.(아빠 혼자 박수를 친다.)

영아: (박수치는 아버지를 빤히 쳐다본다.)

아빠: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네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영아: (아버지를 뺨히 쳐다본다.)

아빠: (영아를 쳐다보며)야옹~바빠요 할까? 하나. 둘. 셋. 넷.

(영아와 아버지가 같이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바빠요를 부른다.)

영아: 안 해.

아빠: 서운이 왜. 안 해? 피아노 안 칠꺼야?

영아: 안 해. (아버지가 가사를 많이 틀렸다.)

아빠: 그만 할꺼야?

(서운이와 아버지 관찰. 2011. 5. 28)

위의 <사례23>에서 아버지는 영아와 피아노 치며 노래를 부르면서 상호작용을 하였다. 아버지는 영아와 재미있게 놀이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질문도 많이 하고, 영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도 많이 하였지만, 아버지 혼자서 너무 주도적이며,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영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버지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영아의 상호작용을 막아 상호작용 할 때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사례24>

아빠: (노래를 부르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오이 같은 내 얼굴 길쭉길쭉 하지요. 눈도 길쭉. 코도 길쭉. 입도 길쭉 길쭉.

영아: (음이라는 소리로 아버지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다.)

아빠: (영아의 소리를 따라한다.) (그림 그리며 노래 부른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섬기리~ 할 때 아빠가 두 손을 올린다.)

영아: (영아가 아버지를 쳐다본다.)

아빠: 서운이도 이렇게 해야지. 서운이도 해봐.

우와. 박수. (영아와 함께 박수친다.) 서운아. 우리 예수님 찬양 부를까?

(노래를 부른다.) 예수님찬양. 예수님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영아: (아버지를 뺀히 쳐다본다.)

아빠: 서윤이 우리 그림 그럴까? 아빠가 뭐 그려줄까? 아빠가 배 그려줄까? 배.

(스케치북에 배를 그리며) 아빠가 배 그려줄게. 우와. 배다. 배.

영아: (배를 그리는 아버지의 그림을 쳐다본다.)

아빠: 배는 물위에서 떠다녀요. 배에는 돛이 있어요.

돛으로 풍향을 조절하면서 바닷길을 헤엄쳐요.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7. 24)

위의 <사례24>에서 영아와 아버지는 마주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그림을 그렸다. 영아도 아버지의 노래에 같이 소리를 내면 그림을 그렸다. 아버지는 영아의 적극적인 반응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노래를 부르면서 영아에게 울동을 유도하였지만,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영아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한다거나, 영아의 그림에 칭찬을 하며 그림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면 서로 간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아버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모습이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상호작용으로 해석되어 나타났다.

<사례25>

아빠: (책 설명) 흥~ 돼지는 엄마젖에서 나란히 나란히 젖을 빨고

캥거루는 엄마 새끼주머니 속에 얼굴을 묻고 젖을 빨아. 음매~ 음매 어땀어?

영아: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킨다.)

아빠: 우리 몸에는 털이 있어. 털이 있어 우리 몸을 지켜주지. 호호호

복극곰은 털이 뽀뽀해. 뽀뽀해. 얼음위에서 뒹굴어도 춥지 않아.

흥! 우와우와. 가시가지. 치타는 날씬한 다리로 넓은 초원을 달리고 두더지는

커다란 앞발로 땅을 파고 땅을 기어다녀. 우리는 단단한 이빨이 있어.

먹이에 따라 이빨 모양이 달라. 흥! 우와~(계속 책에 대해 설명한다.)

영아: (책을 넘기며 책의 그림을 본다.)

아빠: 우와~다 읽었다. 포유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젖을 먹고요, 털이 있고요.

다리가 넷이에요. 이빨도 있고요, 어미에게 배워요. 어디에서나 살고요.
머리가 좋아요. 이게 다 포유류의 특징이에요. 우와~ 다 읽었다.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4)

위의 <사례25>에서 아버지는 영아와 함께 책을 읽으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일방적인 설명만 하였고, 영아의 의도나 반응을 살펴보며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설명하고 있는 책의 내용들을 영아에게 물어보거나, 영아의 반응을 살펴면서 상호작용을 했다면, 영아와 아버지가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5) 엄마만 찾는 영아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가 엄마만을 찾는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 시 어려움을 보였다. 하루 중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영아는 순간순간 엄마를 찾고 어머니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머니를 찾는 모습이 보였다.

<사례26>

(영아와 아버지는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영아: (영아는 졸린지 눈을 비빈다.)

아빠: 지운이 졸려? 지운이 코~할까요? 이리오세요. 아빠가 재워줄게.

(영아를 안아서 흔든다.) 지운이 자장자장. 잘도 잔다. 지운이 코~하자.

영아: (아버지 품에 있는 영아는 몸을 짓히면서 짜증을 부린다.) 업~마. 업~마.

아빠: 여보! 지운이 짜증 부려. 당신이 재워봐.

영아: 업~~마. 업~마. (엄마를 부르며 몸을 움직이고 짜증을 부리다가 운다.)

아빠: (어머니에게 영아를 데려다 준다.) 지운이 좀 재워. 내가 안아주니깐 짜증낸다.

(결국엔 어머니가 재웠다.)

(지운이와 아버지 관찰. 2011. 2. 4)

위의 <사례26>에서 영아는 아버지와 함께 블록 놀이를 하다가 영아가 졸린지 눈을 비볐다. 아버지는 영아가 졸린 것을 알고 영아를 재우려고 하였다. 영아를 안고 살살 흔들며 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달래보지만, 영아는 계속 어머니를 찾았다. 아버지가 계속 달래보지만 영아는 더 심하게 몸부림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루 중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영아는 순간순간 어머니를 찾는 모습이 보여 졌다.

<사례27>

영아: (시소를 가리키며) 아빠아빠.

아빠: 아빠 타? (영아가 탄 쪽의 시소를 위로 올렸다가 내린다.) 우와~쵸! 우와~쵸!

영아: (갈갈 소리 내어 웃는다.) 킁킁. 엄마. 바바. 엄마.

엄마: 우와~잘 탄다.

아빠: (영아의 반대쪽으로 간다.) 썩~잉~ 썩~잉~

영아: 엄마. 이거. 바바. 엄마.

엄마: 우와~잘한다.

영아: (타고 있는 시소를 가리키며) 윤이꺼 윤이꺼. 아빠꺼 아빠꺼. 엄마꺼. 엄마꺼.

아빠: 출발한다. 서윤이 출발한다. 꼭 잡으세요. 썩~웅.

영아: 엄마. 바바.

엄마: 우와~멋지다. 서윤이 잘 탄다~~

아빠: 재밌어?

영아: 엄마. 바바.

엄마: 서윤이. 최고최고최고최고!

아빠: 간다. 썩~앵~. 썩~웅~(영아의 말을 흔들여 준다.)

영아: (다른 말을 가리키며) 엄마. 엄마.

엄마: 응. 엄마도 탈게.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11)

위의 <사례27>에서 아버지와 영아는 놀이기구를 재미있게 타면서 상호작용을 하였다. 아버지와 즐겁게 놀이하면서도 영아는 어머니를 찾아 영아 자신이 놀이하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확인하려 하였다. 아무래도 하루 중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하는 어머니가 곁에 없으면 영아는 불안해하며, 어머니를 찾는 모습이 보여 졌고 어머니가 영아의 놀이를 칭찬해 주면 영아는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하루 중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영아가 어머니를 더 찾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영아의 행동이 나타났다.

2.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아버지의 노력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아버지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 졌다. 즉, 자신의 아내가 영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그대로 따라해 보기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영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영아와 친숙해지기 위해 영아의 생활 패턴을 경험해보거나 아내와 영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도서 등의 매체를 통해 육아에 대한 상식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였다.

1) 아내의 상호작용 모습 모방하기

연구대상 영아의 어머니들은 하루 온 종일 영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모두 첫 아이로 아버지만 초보가 아니라 어머니도 초보였다. 하지만, 영아의

어머니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영아와 함께하면서 영아가 의도하는 것, 영아의 반응, 상호작용 방법, 감정표현 등을 계속 발견하고 익히면서 영아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들을 찾고 경험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다르다. 하루 중, 영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영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쉽지 않았다.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영아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영아의 감정이 어떠한지, 영아에게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그런데 아버지가 영아와 상호작용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아내의 모습이였다. 아내는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영아의 반응은 무엇인지, 영아의 감정이 어떠한지, 영아에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관찰하고 어머니의 모습을 모방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며, 때로는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례28>

(어머니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영아와 함께 놀이하고 있다.)

엄마: 지운이 쉬 많이 했을거야. 기저귀 좀 봐줘.

아빠: 응. (기저귀를 확인하고) 엄청 했구만!

엄마: 기저귀 좀 갈아줘.

아빠: 응, 지운이 쉬했어? 아빠가 기저귀 갈아줄게.

영아: (영아를 침대에 눕힌다.)

아빠: (아무 말 없이 기저귀 가는데 집중을 하며 갈아준다.)

영아: (몸을 움직이며 끽끽 소리를 낸다. 잠시 후, 소리도 지른다.)

아빠: (흔жат말로 한숨을 쉬며) 다했다.

(지운이와 아버지 관찰. 2010. 9. 25)

<사례29>

아빠: 지온아. 기저귀 갈자. (영아를 안고 카펫에 눕힌다.)

영아: (영아가 몸부림을 친다.)

아빠: 기~저귀 갈자. 기~저귀 갈자.(음을 넣어 노래를 부르며 영아를 달랜다.)

지온이가 쉬를 많이 했나? (기저귀를 벗기며) 우와, 쉬를 많이 했네.

아빠가 시원하게 기저귀 갈아줄게요.

(물티슈로 닦으며) 이야, 시원하다. 깨끗이 닦고 뽕뽕 기저귀 갈자.

(새로운 기저귀로 갈아주며) 지온이 시원하지요. 뽕뽕하지요.

영아: (영아가 몸을 비틀며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빠: 지온이 잘하는데~우리 지온이 잘하네. 기저귀 짹짹도 붙이고, 잘했어요.

영아: (영아가 많이 움직이자 손에 딸랑이를 쥐어줬다.)

영아는 딸랑이에 집중을 하며 딸랑이를 흔든다.)

아빠: 딸랑딸랑 소리가 나네. 아빠가 옷 입혀줄게. 아이추워. 아이추워. 옷 입자.

(옷을 다 입히고) 짹! 지온이 옷 다 입었다. 끝!

지온이 잘했어요. 박수. (지온이 손을 잡고 박수를 친다.)

영아: (아빠가 지온이 손을 잡고 박수를 몇 번 쳐주니 아빠가 손을 떼 후에도 영아가 발을 흔들며 짹짹을 한다.)

아빠: 지온이 짹짹했어? 잘하는데. 짹짹, 짹짹,

기저귀도 잘 갈고 착한 어린이예요.

(영아를 안아주며 지온이 볼에 뽕뽕을 한다.)

(지온이와 아버지 관찰. 2011. 1. 9)

위의 <사례28>에서 보듯이 영아의 아버지는 지온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저귀를 가는 일에만 몰두하여 영아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었다. 하지만, 기저귀를 가는 동안 불편함을 표현하는 영아의 소리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기저귀를 잘 갈아야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 나타났다. 며칠 후, 아버지가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상황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례28>과는 확연히 다른 상호작용이 <사례29>에서 나타났다. 기저귀를 갈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영아에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영아의 반응에 대처하는 모습이 보였고, 상호작용의 횟수도 많아지고 상호작용의 말이 길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가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하였다. 다음 면담 내용을 살펴보자.

처음에 지온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아이도 가만히 있고 저 또한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서툴러 오로지 기저귀가 잘 채워졌는지, 아이가 불편하지는 않는지만 생각하며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데 말이 많더니 지온이가 소리 내어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 줄 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엄청 수다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눕히는 것부터 바지를 벗기면서도 아이와 대화하듯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는지 깔깔깔 소리를 내며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제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그 이후, 저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동작 하나하나를 아이에게 대화하듯 이야기를 하면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그런데 지온이가 저의 모습을 보며 엄마에게 보여준 웃음 소리를 저에게도 보여주더라구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2011. 1. 1. 지온아버지 면담)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내의 모습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이다. 아버지는 평소 어머니가 영아에게 기저귀 갈아주는 모습을 관찰하고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아내의 모습과 비슷하게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그래서 전보다는 적극적이고 영아의 반응이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 변화는 기저귀 갈기 뿐 만 아니라 목욕을 시키거나 밥을 먹일 때 또 영아와 놀이할 때의 모습에서도 관찰되었다.

<사례30>

(아버지가 영아를 목욕시키려고 준비한다.)

아빠: 목욕준비 끝! 서윤아, 아빠가 목욕 시켜줄게.

영아: 응.(아버지를 뺨히 쳐다본다.)

아빠: 티셔츠도 벗고, 바지도 벗고, 기저귀도 벗고, 됐다.
 따뜻하다.(영아에게 물을 붓는다.) 서윤이. 비누칠 하자.(영아의 몸을 닦아준다.)
 영아: (간지러운지 깔깔깔 웃으며 몸을 비튼다.)
 아빠: 깨끗하게 닦자. (영아의 몸을 행군다.) 됐다. 이제 머리 감을까?
 (순간 멈칫하며 아내를 쳐다본다.) 어떻게 하지? 그냥 앓은 채로 감겨?
 엄마: 안아서 감겨야지.
 아빠: 내 옷 다 젖잖아.
 엄마: 그러니깐 머리부터 감겨줬어야지. 수건으로 몸 감싸고 눕혀서 감겨.
 아빠: (영아의 몸을 수건으로 감싸고 눕혀서 머리를 감긴다.)
 서윤이, 시원해요? 보글보글 머리를 감아요~.
 영아: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
 아빠: 됐다. 다했다. 서윤이 잘했어.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6. 19)

위의 <사례30>에서 아버지는 영아를 목욕시키기 위해 목욕 준비를 다 하고 영아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켰다. 그런데 머리를 감길 차례가 되자, 멈칫하였다. 머리를 감겨야 하는데 앓아서 감기면 영아 눈에 비누가 들어갈 것 같고 안고 감기자니 아버지 자신의 옷이 다 젖을 것 같아 옆에 있던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어머니는 머리를 먼저 감고 목욕을 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고 이미 목욕을 먼저 시킨 아버지에게 수건으로 영아의 몸을 감싸고 안아서 머리를 감기라고 도움을 주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자신의 옷도 젖지 않고, 영아의 머리를 잘 감기는 모습이 나타났다.

2) 상황에 따른 원인 찾기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영아의 감정표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새로운 상

황에 대해 당황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아버지만의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상황에 따른 원인을 찾아보거나,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영아에게 다양한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례31>

(아빠가 영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아빠: 지온아. 토끼들이 남남 풀을 먹고 있어요. 깡충깡충. 남남

영아: (그림의 토끼를 가리킨다.)

아빠: 맞아. 깡충깡충 토끼. (동화책을 보며) 꿈돌이는 꽃 냄새를 맡지요.

(그림을 가리키며) 꿈돌이. 꽃.

영아: (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보다가 몸부림을 친다.)

아빠: 지온이 왜 그래? 다른 책 볼까? (영아에게 다른 책을 보여준다.)

영아: (계속 몸부림을 친다)

아빠: 지온이 인형 가지고 놀까?

영아: (계속 몸부림을 치며 짜증을 낸다.)

아빠: 지온아. 물! 물! 물먹자.

영아: (물통의 빨대를 빨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아빠: 지온이 왜 그래? 쉬었나? 기저귀 볼까? 으악~응가했어. 안지온.

(지온이와 아버지 관찰. 2011. 3. 26)

위의 <사례31>에서는 영아와 아버지가 동화책을 읽으면서 상호작용 하였다. 그런데 동화책을 읽는 중, 영아가 몸부림을 쳤다. 아버지는 다른 책을 제시하거나, 다른 놀잇감을 제시 했지만 소용없었다. 영아는 계속 몸을 비틀며 짜증을 부렸다. 아버지는 물통에 있는 물을 주면서 물을 먹으라고 하지만, 영아는 물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아의 기저귀를 보았더니, 영아는 응가를 하였다. 영아가 몸부림을 치는 원인을 모르는 아버지는 영아가 왜 몸부림을 치는지 찾기 위하여 다른 책이나, 다른 놀잇감을 제시하거나, 물을 먹이는 과정 등을 통해 영아가 몸부림을 쳤던 원인이 응가 때문인

것을 찾아냈다. 아버지는 상황에 따른 원인을 찾으며 영아의 반응을 알아내는 노력을 하며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례32>

(그림그리기를 하다가 물고기를 그린다.)

아빠: 우와. 서윤이 물고기 봤어?

영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어어 안 봤어.

아빠: 서윤이 백화점에서 오늘 물고기 안 봤어? 밥 먹으면서 앞에 물고기 안 봤어?

물고기 있었지? 물고기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

물고기가 서윤이한테 어떻게 했어? 물고기가 뽀뽀뽀 했었지?

영아: 뽀뽀뽀.

아빠: 어. 물고기가 서윤이한테. 뽀뽀뽀하고 있었지? 오늘 서윤이 어디 갔었어?

아빠랑 또 엄마랑 서윤이랑 어디 갔었어. 오늘? 오늘. 어디 갔어? 롯데 갔어?

영아: (아버지만 쳐다본다.) 응. 롯데.

아빠: 롯데 가서 오늘 서윤이랑 엄마랑 아빠랑 뭐했어? 롯데 가서 밥 먹었지?

영아: 바나나

아빠: 어. 바나나. 롯데 가서 바나나 먹었어 서윤이?

아~차에서 서윤이 바나나 먹었지 서윤이.

영아: 차안에서. 바나나.

아빠: 맞다. 서윤이 차안에서 바나나 먹었지. 롯데가선 뭐먹었어? 토마토 먹었어?

안 먹었어? 서윤이 토마토 먹었지? 토마토. 서윤이 아이스크림도 먹었지?

(서윤이와 아버지 관찰. 2011. 3. 24)

위의 <사례32>에서 영아와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림 속에 물고기가 등장하면서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영아에게 오늘 물고기를 봤냐는 질문을 하지만, 영아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물고기를 본 영아에게 물고기가 기억나도록 처음 질문한 상호작용에 ‘백화점, 밥 먹으면서’ 라는 말을 넣어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의 상호작용을 들은 영아는 물고기를 봤다고 바로 대답하였다. 또한, 아버지는 오늘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

며 상호작용하는데, 영아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간 곳에 대해 똑같은 의미이지만, 다양한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알려주니 영아도 바로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따라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아버지는 영아에게 처음 질문한 상호작용에 몇 가지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상호작용하니 영아는 바로 기억하고 대답하였다. 아버지는 영아의 의도와 반응을 알아내는 것을 어려워하였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영아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다시 묻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해결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3) 영아의 생활 패턴 경험하기

영아의 아버지는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휴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아의 생활패턴을 경험하고, 영아의 행동을 따라 해보며 영아의 눈높이에서 영아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영아와 잦은 애정표현으로 영아와 가까워지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하루 중, 적어도 30분 이상은 영아와의 놀이 시간을 정해놓고 놀이하면서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 어려운 점들을 찾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아래의 사례는 지온이 아버지는 영아의 생활 패턴을 경험하기 위해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영아와 단 둘이 시간을 보냈다. 영아와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던 일들과 아버지가 느꼈던 생각을 글로 표현한 내용이다.

아내가 없이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오전 9시부터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온이와 둘이서 지내게 됐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온이에게 준비해둔 아침을 먹였어요. 평소에는 밥도 잘 먹는 것 같았는데...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밥을 먹는데

흘리기도 하고, 음식을 뱉기도 하고 줄줄 따라다니며 밥 먹이고, 치우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밥을 다 먹이고, 지온이와 놀이시간을 가졌습니다. 책도 읽고, 인형도 가지고 놀고, 블록놀이도 하고 보니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질러있는 모습을 싫어하는데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니 속이 터지더군요. 중간중간 아이에게 정리하자고 이야기 했지만, 정리는 커녕 더 어질렀는데 혹시나 지온이가 장난감 때문에 다칠까봐 혼자 곳곳이 치웠습니다.

(지온아버지 저널. 2011. 2. 19)

아버지는 영아와 단 둘이 지내야 할 생각에 걱정도 되고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는 영아와 함께 지냈다. 영아는 엄마와 밥을 먹을 때는 얌전하게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먹일 때는 뱉거나, 흘리거나, 안 먹으려고 하여 아버지는 정신 하나도 없이 영아와의 식사를 마쳤다. 또한, 평소 성격이 깔끔했던 아버지는 영아가 어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 했지만, 영아가 장난감 때문에 다칠까봐 중간 중간 장난감들을 정리하였다.

한참을 놀고 있던 아이가, 오마이갓! 화분을 엎었습니다. 나도 몰래 순간, “안지온!” 하고 소리를 지르니 아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른 아이를 안고 달래고 엎은 화분을 치웠습니다. 화분을 다 치우고 나니 저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어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 밥을 차리는데 지온이가 기저귀에 손을 넣고 있길래 손을 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저귀를 보니 용가를 했더라고요. 또, 오마이갓! 입니다. 오늘하루 오마이갓을 속으로 몇 번을 외쳤는지...얼른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용가를 치워주고 기저귀를 갈고 밥을 다시 차리는데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지온이와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침먹일 때 보다는 수월했습니다.

(지온아버지 저널. 2011. 2. 19)

영아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영아와 함께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영아가 화분을 엎어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영아에게 소리를 질렀고 영아는 아버지의 소리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얼

른 우는 영아를 달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화분을 치웠다. 그리도 한숨을 돌린 뒤, 점심을 먹으려고 밥을 차리는데 영아의 행동이 이상해 살펴보니 영아가 응가를 하였으며 아버지는 영아의 응가를 치우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 밥맛이 없었지만, 영아를 위해 같이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아침에 영아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경험한 아버지는 아침먹일 때보다 점심때는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먹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점심을 먹고, 치운 다음, 다시 지온이와 놀았습니다. 목마도 태워주고, 텐트에 들어가서 불꽃 공놀이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온이가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온이를 안고 달렸습니다. 왜 그러는지 묻기도 하고, 다시 기저귀도 살펴보고, 간식도 줬지만, 계속 몸을 비틀며 울었습니다. 지온이를 안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온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지온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와 보니 역시나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치울 힘도 없어 거실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오후 3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며, 아내에게 엄지손가락으로 “당신이 짱!” 이라는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지온아버지 저널. 2011. 2. 19)

아버지는 영아에게 점심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 주고 영아와 놀면서 여유를 찾아가 싶더니 갑자기 영아가 짜증을 부렸다. 아버지는 영아에게 왜 그러는지 묻기도 하고 기저귀도 살펴보고 간식도 주었지만, 영아가 왜 짜증을 부리는지 알 수 없어서 영아를 안고 계속 달래니 영아는 아버지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영아는 졸려서 짜증을 부렸던 것이다. 잠든 영아를 눕히고, 아버지 역시 지쳐 누웠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아와 단 둘이 있었던 아버지는 아내가 오자 아내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영아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영아의 어머니 없이 영아와 아버지 단 둘이서 하루 동안 영아의 생활 패턴을 경험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와 같이 아버지는 영아와 단 둘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아가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고 밥을 흘리거나 뺨는 모습도 보여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그 상황을 차분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영아와 놀이도 하고 우는 영아를 달래며,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고 영아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영아를 재우면서 아버지는 영아의 하루 생활패턴을 경험하였다. 처음에는 엄두도 나지 않아서 영아와 단 둘이 지낼 수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일어나는 상황들을 해결하면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후에도 아버지와 영아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또 가졌는데, 아버지는 힘이 들긴 했지만, 한번 경험을 해선지 영아와 잘 지냈다고 하였다.

4) 매체를 이용하여 육아 상식 익히기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퇴근 후, 또는 쉬는 날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호작용 방법들을 익혀나가기도 하였다.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은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다른 아버지들의 경험담이나 동영상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또한, 육아에 관한 육아 전문 책을 살펴보고 휴일에는 아버지의 육아에 대한 TV프로그램 시청하거나, 육아 블로그를 통해 다른 아버지의 육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은 간단히 메모를 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프린트하여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영아에게 실천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이러한 모습은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TV채널을 돌리다가 EBS '60분 부모'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영아와 부모간의 애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프로그램에 빠져들어 지금 저와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시청을 할 수 없어서 컴퓨터로 다운을 받아 영아의 특성과 육아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 '아빠 육아의 힘' 이라는 제목으로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는 다른 아빠들의 사례에 대해 나오는 것을 보며, 아이를 향한 나의 육아는 어떠한지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에 관해서는 뭐든지 '난 못해.'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난 못해가 아닌 '안하는 거' 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부딪치면서 경험하니 저 또한, 부족한 모습이지만 다른 아빠들처럼 아이에 관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서윤아버지 면담. 2011. 2. 4)

영아의 아버지는 우연히 EBS '60분 부모'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중 '아빠 육아의 힘'이라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다가 다른 아버지들의 사례를 보며 아버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버지 스스로가 영아와 함께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며 아버지는 영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전에는 기저귀 갈아줄 때 가만히 있던 지온이가 요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몸을 비틀며 움직여서 힘을 쓰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 지온이가 울고 해서 기저귀 가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엄마들이 공유하는 카페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것들까지 물어보면 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하는 생각으로 카페에 물어봤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몸을 비틀고 움직여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울고 해서 기저귀 갈아 줄 때 진땀을 뺐니다.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답을 달아주겠어?

하며 별생각 없이 질문을 남겼습니다.

(지온아버지 면담. 2010. 11. 19)

지온이 아버지는 아내가 너무나 쉽게 하는 기저귀 가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어려서는 영아가 기저귀 갈 때 가만히 있어서 쉬었는데 영아가 좀 크니 힘을 쓰면서 몸을 비틀어 기저귀를 갈 때면 진땀을 뺀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영아 엄마들이 공유하는 카페를 들어가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 글의 내용은 위의 사례에서처럼 ‘기저귀를 수월하게 가는 방법’이었다. 아버지는 ‘설마 답을 달아주겠어?’ 하는 의심을 가진 채, 글을 남겼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카페에 다시 들어갔더니 답 글이 달아 있더라구요. 어떤 엄마가, “기저귀 갈 때, 아이의 손에 리모컨을 쥐어주세요.”라고 대답하였고, 그 아래에 다른 엄마가, “핸드폰도 엄청 좋아해요”라고 답 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반으로 혹시나 하고 기저귀 갈 때, 리모컨을 지온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온이가 리모컨에 집중하며 기저귀 갈 때 가만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기저귀 갈 때는 리모컨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동안 기저귀 갈기가 쉬었는데 어느 날, 지온이가 손에 쥐어준 리모컨을 던지고 몸을 또 비틀고 가만히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니 핸드폰 버튼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깔깔깔 소리 내어 웃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기저귀 갈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지온이가 핸드폰을 싫증 낼 때면 새로운 다른 무언가를 지온이 손에 쥐어주면 되겠죠?!

(지온아버지 면담. 2010. 11. 19)

아버지는 약간의 의심을 한 채, 글을 남겼는데 어떤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질문에 답을 달아주었다. ‘리모컨을 사용해 보세요.’, ‘핸드폰도 좋아요.’ 라는 답이었다. 아버지는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 줄 때, 다른 어머니들이 알려준 방법을 써 보았다. 그런데 정말 영아가 손에 쥐어준 물건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는 영아의 기저귀를 쉽게 갈아 줄 수 있었다. 이후, 지온이 아버

지는 기저귀를 가는데 여유를 보였다.

5)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조언 듣기

영아의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영아가 잠이 들면, 부부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버지는 퇴근하면 피곤하여 바로 잠자리에 들기 바빴는데 영아와의 상호작용 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간의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언을 듣고 영아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 하며, 궁금했던 점이나 의논이 필요한 점들에 대해 대화함으로써 영아의 경험이나 생활, 성장과정 등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를 재우고, 아내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서윤이는 엄마만 찾지? 나한테도 오고하면 좋은데...” 아내는 “그야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 얼굴을 당신 얼굴보다 많이 보니까, 내가 더 익숙하겠지.”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나중에 서윤이가 아빠~ 하고 달려와서 내 품에 꼭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될 날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서윤이가 나랑 있는 시간도 많고, 내 얼굴을 더 많이 보고 하지만, 아빠가 퇴근해서 서윤이랑 놀이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만큼은 서윤이에게 집중해봐. 그럼 서윤이도 아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해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0분씩은 서윤이랑 맘껏 놀아주기로...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윤이가 내가 퇴근을 하면 현관으로 나와서 저의 허벅지를 잡더라구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서윤이에게 뽀뽀도 해주며,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서윤이의 반응에 같이 표현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내 말대로 아이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었나 봅니다.

(서윤아버지 면담. 2011. 5. 18)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영아가 엄마만 찾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

지도 영아가 와서 안겼으면 하는 마음을 아내에게 이야기 하였다. 이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영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서 꼭 그 시간만큼은 영아에게 집중하여 영아와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퇴근 후, 영아와 함께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영아에게 집중을 하니, 어느 순간부터 영아는 아버지가 오면 현관으로 나가 아버지의 허벅지를 붙잡고 반가운 표현을 하였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순간순간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온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묻자, 아내는 “나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하루 종일 지온이랑 있어보니깐, 익숙해진 것 같아.”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자연스레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지온이가 울거나, 짜증을 부릴 때는 제일 먼저 기저귀를 확인해 보거나, 배가고픈 건 아닌지, 졸린 건 아닌지 살펴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후, 지온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가 이야기 한 것을 잘 생각하며 보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아내가 이야기한 세 가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전에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 지온이가 많이 울거나, 짜증을 많이 부렸는데 요즘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게 되어 지온이가 짜증내거나 우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지온아버지 면담. 2011. 1. 24)

위의 사례에서 보면, 아버지는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래서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아내의 조언을 들었다. 기본적인 영아의 의도를 알고 영아가 표현할 때 마다 아내의 말을 생각하면서 영아의 표현을 해석하니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영아가 많이 울고 짜증도 많이 부렸는데, 이제는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파악하게 되어 영아가 울거나 짜증내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영아의 아버지는 아내와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영아의 반응, 감정, 심리상태, 대처방법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들을 찾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견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대처 방법들을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다음 날은 전날 이야기 나눈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 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관찰초기보다 아버지가 영아의 의도나 반응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영아의 감정 상태나 영아의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결과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생긴 동시에 영아가 아버지를 많이 따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과정을 살펴 보며, 영아와 상호작용 시 아버지가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어떠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어려움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영아에게 적절한 언어사용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몰입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영아의 감정에 대한 어색한 반응 등으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지속해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들은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영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지속시키지 못하였다. 생후 1년경의 영아는 단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한 단어 문장을 사용하며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4). 따라서 영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위해서는 영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이러한 맥락적 이해보다는 영아가 사용하는 뚜렷하지 않은 단어에만 집중함으로써 영아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졌다. 이는 하루 종일 영아와 함께 지냄으로써 영아의 하루 일과 패턴을 익히고 생활하며, 끊임 없는 몸짓과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엄마들에 비해 아버지들은 영아와 함께 지내며 부딪치는 시간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영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상태가 변한다. 잘 놀다가도 갑자기 짜증을 부리거나, 울리기도 하고 잠이 오거나, 배가 고프거나, 응가를 했을 때나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변화가 많다. 조성연(2005)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영아의 언어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음과 행동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점차 표정과 웅얼이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빠르게 언어를 조직하는 능력을 배우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언어를 획득하게 된다. 언어의 이해는 영아기의 중요한 인지적인 성취이며 의미 있는 과정이다. 영아의 웅얼이나 제스처에 성인의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문법과 의사소통 규칙을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아버지는 순간에 나타나는 영아의 감정 변화에 대해 대처하는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였으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일 때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아의 울음은 다양한 감정 표현인데 아버지는 영아의 감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아의 감정표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아버지는 영아에게 적절한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였다. 아버지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말은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영아와 함께 하는 상호작용의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 하거나, 같은 말을 문장의 순서나 단어들만 바꾸어 여

러 번 반복하여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을 더듬거나, 문장의 구조가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도 보여졌다. 임유경(2003)의 선행연구에서는 영아의 언어발달은 실제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 어휘의 사용이 더욱 명확해지고 다양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영아가 다양한 실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영아와 자주 대화를 통해 언어 발달을 촉진하며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어 발달은 영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고 인지적 활동을 중요한 매개체가 되므로,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 영아에게 적절한 상호작용과 환경은 필수적이다.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 방법에 있어 특징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을 넣기도 하고, 말소리의 크기를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몸짓으로 언어를 표현하여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지만, 아버지는 평소의 말투와 일정한 목소리 톤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영아는 양육자에게 울기, 응시하기, 미소 짓기 등으로 자신의 호기심, 욕구 등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고(권혜진, 1996), 언어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12개월 이후부터 영아의 상호작용은 점차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차례 바꾸기, 공동 주의집중, 상황적 문화적 관습과 같은 비언어적 측면과 함께 이루어진다(Vygotsky, 1962; 이선희, 2010에서 재인용). 즉 상호작용과정에서 영아의 언어는 상황, 동작 등과 결합되어서 비로소 성인에게 이해를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성인의 언어도 비언어적인 요소와 결합되어야 영아에게 이해되어진다(김재은, 1991). 박승주(2003)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은 신체, 목소리, 공간과 관련되며 손 흔들기, 안기, 손으로 가리키기, 웃기 등과 같은 신체적 언어와 운율, 목소리의 고저, 강약, 멈춤 등과 같은

목소리는 의사전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말투나, 목소리 톤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어색해하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말투와 억양, 음을 넣어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하니 영아는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화영(1993)은 영아의 초기 발성에 대해서 아버지는 소리를 내어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아동은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받아 의사소통의 기술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학습이 되며 이러한 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아버지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황에 대해 대처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아버지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경험을 통해 행동이나 상호작용이 익숙해진 반면에,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영아에 대한 신기함과 영아발달특성에 대한 정보와 자녀 양육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김지희, 2007).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아버지는 영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함으로 영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어려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영아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해 늦게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루에 일어나는 영아의 반응은 무한하다.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거나 표현을 한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어머니도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영아의 반응에 대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반복의 반복을 통해 어머니는 영아의 의도와 반응을 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

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다르다. 영아와 반복되는 상호작용은 자연스레 잘 이루어지지만, 순간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아버지들은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아버지는 영아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많은 질문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자기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상호작용하며, 영아의 대답이나 상호작용을 막는 현상이 나타나며,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실패의 경험을 하였다.

또한, 아버지는 영아에게 한꺼번에 똑같은 의미의 질문을 약간의 말만 바꾸어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대답은 했지만, 그 다음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른 행동하거나,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영아가 다시 되묻는 식으로 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영아에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지만, 영아는 많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주도적이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오히려 영아에게는 대답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혼동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Lamb와 Parke(1981)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양적으로 참여가 적고 놀아주는 형태는 분명 다른 점이 있지만, 부모-영아의 상호작용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고 영아의 행동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아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익숙하고 일상적이지만, 반대로 아버지와는 짧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인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버지는 영아에게 어머니보다 더 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아버지와 영아아의 상호작용과정 중, 어머니를 찾는 영아의 모습에 아버지는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영아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Lincoln(1984)은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이란 아버

지에게서 보여 지는 애착형성의 결과라고 하였다. 한국의 아버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현 사회가 요구하는 양육자로서 자녀의 놀이상대자, 정서지원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아버지 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김낙홍, 2010). 그러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달리 실제는 생계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정에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직장에 투자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휘숙(1986)은 아버지들이 영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은 어머니와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양육적 능력을 지녔으며, 어머니와 다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영아의 지적발달과 성격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영아기는 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형성 되고, 유아기 발달을 예측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결함은 이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영아에게 있어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 할 때(김민정, 2005),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효율적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영아기에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아버지는 이후에 이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영아에게 우유를 먹여주고, 함께 놀아주고, 안아주고, 목욕을 시켜줌으로써 유대감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어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형성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정순화, 2008)고 하였다. 영아가 어머니를 더 찾는 것은 아버지 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때문이므로 아버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아와의 유대감을 높이며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2.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아버지들의 노력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아버지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 졌다. 즉, 자신의 아내가 영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그대로 따라해 보기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영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영아와 친숙해지기 위해 영아의 생활 패턴을 경험해보거나 아내와 영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 육아에 대한 상식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아내의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며 모방하였다. 영아의 어머니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영아와 함께하면서 영아가 의도하는 것, 영아의 반응, 상호작용 방법, 감정표현 등을 계속 발견하고, 익히면서 영아에 대해 알게 되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들을 찾고, 경험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다르다. 영아와 함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Shore(1997)는 영아에게 따뜻하게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자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도록 하며, 언제 자극을 원하고 언제 휴식을 원하는지 영아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해 주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루 중 적은 시간을 함께하는 아버지가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영아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영아의 감정이 어떠한지, 영아에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인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빠른 시간에 영아에 대해 인식하여 반응하기 위해 아내의 모습을 관찰하고, 아내의 모습을 모방하여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결과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영아의 반응 또한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일어나는 상황에 따른

원인을 찾는 모습이 보여 졌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아가 왜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며 원인을 찾으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영아의 감정표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해 당황하는 등 어려움을 보였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아버지만의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영아가 울면 그 이유가 배가고파선지, 졸려선지, 기저귀 때문인지 아버지들은 상황에 따른 원인을 찾아보거나, 상호작용 할 때, 과거의 이야기들을 회상시키기 위하여 영아에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여러 가지 말로 바꾸어 반복하여 상호작용하거나,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해 보는 등의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영아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셋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영아의 생활 패턴을 경험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Shore(1997)는 유아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대해 아버지의 헌신이 유아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며 유아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의 노력을 유아의 초기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정현희, 최경순(1995)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인지 발달을 강화시키고 성역할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아내가 없이 영아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며 영아의 생활 패턴을 경험하고, 영아의 행동을 따라 해보며 영아의 눈높이에서 영아와 함께 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영아와 단 둘이 함께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영아의 감정표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호작용 해야 하는지 등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

해 대처하며 어려운 점들을 찾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 아버지는 영아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였지만, 일어나는 상황들을 해결하면서 보람도 느끼며 영아와 더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아버지는 바깥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긴밀한 정서적 가족 관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조형숙 외, 2008)하였으므로, 아버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아의 생활 패턴을 알아보며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넷째, 아버지는 영아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육아 상식을 익혔다.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김은경(2000)은 영아기는 시신 양면에 걸쳐 인간에게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로 이 기간에 수유, 대소변 가리기, 보행완성, 언어 개시 등 중요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의 육아방법이 이후의 성격형성의 기틀을 잡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시기에 아버지는 아동양육 부양의 책임의식을 갖게 되어 영아발달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영아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영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버지는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지희(2007)는 아버지-영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통해 영아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변화를 알아보았는데 아버지들은 프로그램 실시 후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놀이 상황과 연결이 되는 돌봄을 더 쉽게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며,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호작용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모습도 보였으며,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은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 물어보기도 하였고 다른 아버지들의

경험담이나 동영상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또한, 육아에 관한 육아 전문 책을 살펴보고 육아에 대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육아 블로그를 통해 다른 아버지의 육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영아에게 실천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가 영아와 함께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는 영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하였다.

다섯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조언을 들었다. Parke(1975)는 영아가 아버지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아버지가 영아의 기저귀를 1주일에 몇 번 갈아주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영아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경우 애착이 형성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영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며, 아내만의 양육방법에 대해 대화를 통해 듣고 행동하여 영아와 원활한 상호작용이 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최근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며 자녀와 관련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에게 온정적인 자상하고 친구같이 대화하는 아버지가 이상적인 아버지상이며(장영애, 이영자, 2009), 자녀를 능동적으로 돌보며 양육하고 가사활동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공진수, 2006) 자녀와 잘 놀아주는 아버지(권오진, 20089) 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영아에 대해 알고 가사활동에 참여하며, 영아와 잘 놀아주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에는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까지 시간이 걸려 영아가 많이 울고, 짜증도 많이 부렸는데 이제는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파악하게 되어 영아가 울거나 짜증내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조언을 통해 영아와 꼭 함께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영아에게 집중하며 상호작용 하였더니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관찰초기보다

아버지가 영아의 의도나 반응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영아의 감정 상태나 영아의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과정을 살펴 보며 영아와 상호작용 시 아버지가 느끼는 어려움을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보고, 아버지의 노력과 해결방법을 통하여 영아와 아버지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영아와 아버지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어려움

첫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영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아의 부정적인 감정표현에 대한 대처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영아의 행동 특성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영아의 발달 특성과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였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문장의 구조가 올바르게 못 하였으며, 상호작용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였는데, 이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아버지가 영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자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

다.

셋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느리게 대처하는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예측 할 수 없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부족이므로, 영아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

넷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상호작용으로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영아에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양적인 상호작용을 하려함으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함을 알고, 영아의 행동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다섯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영아가 엄마만 찾는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영아가 어머니를 더 찾는 것은 아버지 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때문이므로 아버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아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2) 영아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아버지들의 노력

첫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아내의 상호작용 모습을 관찰하며 모방하였다. 따라서, 남편이 부인에게 배울 수 있는 것, 반대로 부인이 남편에게 배울 수 있는 특성을 사례별로 모아 상호보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며 육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과 다양한 경험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부모들이 수시로 확인하며, 일어날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

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영아의 하루 일과 생활 패턴을 경험하였다. 직장에서의 생활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아버지들이 원하는 날에 가족의 날로 정하여 그날만큼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육아 상식을 익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번은 '좋은 아빠 되기'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버지는 영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아내와의 대화를 통한 조언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부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육아와 관련된 부부의 의사소통이 효율성을 갖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인 연구 방법으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아버지들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호과정에서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해결해 나가는 아버지들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동시에 영아와 아버지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인 연구를 통해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아버지들은 경험한 어려움을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어떻게 해결하며, 노력하는 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활용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달 연령,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과정과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 분석을 통해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많은 아버지들이 일과로 인한 시간 부족과 육체적·정신적인 피곤함, 그리고 심적인 부담감으로 연구 참여에 꺼려하였다. 영아와 아버지의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참 고 문 헌

- 강경옥(2002). 영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 및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진수(2006). 아버지됨에 관한 연구 : 기독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2005).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 **한국아동학회**, 26(6), 173-187.
- 곽승주(2003).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2세 영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경숙(2008). 영아 인사행동의 특성 및 의미 탐색. **한국유아교육학회**, 28(2), 143-167.
- 권경숙(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13(1), 229-255.
- 권혜진(1996).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른 여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박성연(1997). 천자서평4 : 아버지의 역할과 아동발달. **한국상담선교연구원**, 5(2), 124-124.
- 김기순(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낙홍(2010).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찰. **미래유아교육학외지**, 18(2), 79-98.

- 김난실(2004). 만2세반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영(2009). 아버지이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5).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과 이상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성(1997).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김상하(1998). 아버지의 영아 양육참여와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우, 최태진(1997).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 학지사.
- 김순옥, 이민아(2006). 영아기의 아버지 역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9**, 15-27.
- 김시완 역(2002). **아빠와 함께 60분을**. 서울 :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 김영두(2011). 초보아버지들의 양육특성과 아버지 됨의 변화과정.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2004). 부모-영아 놀이유형과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비교.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8). 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개연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91). 5세아의 언어·사고 능력과 제 요인에 관한 기초 연구 : 가정 환경변인 및 지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

- 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인식과 역할수행의 실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2008). 영아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한 아버지의 역할 인식 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 이임순(2009).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과 또래 유능성. **미래유아교육학회**, 16(1), 1-21.
-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도향(2006). 영아 놀이성과 아버지-영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미정(2006). 유아기 부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연(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한국몬테소리교육학회**. 14(1), 40-57.
- 박찬옥, 구수연, 이옥임(2011).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정민사
- 배기열, 민경선, 손기수(1997). 부모의 체력관련 요인과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유아의 체력 및 체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6(4), 256-264.
- 변수정(2003).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명원(2007). 부와 모의 애착표상 일치와 유아의 인지·사회·정서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영, 김정현, 전세경, 정현심, 권윤경(2010). 다문화 가정 유아의 애착 및

-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특성. **한국아동교육학회**, 19(3), 23-39.
- 성영혜, 송주미, 장미경(1995). **아버지도 부모인가**. 서울 : 샘터사
- 성은숙(2008). 영아 교사의 역할에 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연구. 한국성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민선(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원(200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미정(2002). 영아-아버지와 영아-어머니의 애착안정성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연주(2001). 4,5세 유아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위영희(1983). 아버지-아동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아버지의 역할 및 아버지-아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4, 23-35.
- 유승은(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유형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차이.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주영, 류도희, 이귀옥(2001). 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22(1), 323-334.
- 이미애(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아동권리학회**. 12(2), 189-210.
- 이용숙, 김영천(2002).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은화, 이경우, 이기숙(1992).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 연구소**. 20(1), 5-31.

- 이선희(2010). 만 1세반 자유놀이시간에서의 영아-교사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민감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재, 이영환(2010). 아버지-유아 상호작용 및 아버지 통제전략이 유아의 자기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17(4), 99-118.
- 이순희(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보상, 대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순(2005). 직업종류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와 직업역할, 가족역할과의 관련성 비교.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0(3), 399-360.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3(3), 5-19.
- 이정순(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 역할관과 아동관이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7(4), 53-67.
- 이현아(2007). 직업군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유경(2003). 영아기 조기, 특기교육의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화성(2006). 부모의 언어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경, 이지현(2008).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73-89.
- 장영애, 이영자(2009).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 18(3), 619-629.
- 장정미(2006). 임신기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경(2009). 영아 아버지의 양육지식과 애착.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분, 정순화(2008).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15(4), 67-91.
- 정화영(1993).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정현희, 최경순(1997).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동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 9-23.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2008). 포스터 논문 발표 : 한국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한국아동학회**, 2008(2), 137-137.
- 조용환(1996).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2(1), 239-264.
- 차은주(1986). 아버지의 사전교육이 신생아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소은(2009). 유아기 부모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 13(2), 189-212.
- 허영림(2007).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6(1), 97-116
-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 Blanchard, R. W., & Biller, H. B.(1981). Father aviabi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third grade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4, 301-305
- Almy, M., & Geaishk, C.(1996). **아동연구의 질적 접근**(임재택, 황혜익 공역). 서울 : 교육 과학사.
- Bowen, S. M. and Miller, B.C.(1980). Paternal attachment behavior as related to presence at delivery and preparenthood classes. *Nursing Research*, 29(5), 307- 310.
- Brown, M. A.(1986). Social Support , Stress , and Health: A Comparison of 70 Expectant Mothers and Fathers, *Nursing Research*, 35(2), 72-76.
- Canfield. K. R.(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Kansas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Creswell, J.(2010). **질적연구방법론**(조흥식 외 공역). 서울 : 학지사.
- Feinman, S. (1992). *Social referenc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 infancy*. New York: Plenum.
- Lamb, M. E.(1976).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Lamb, M. E.(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amb, M. E(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Y : Wiley.
- Lamb, M. E. 김관웅, 박성연(1995). **아버지의 역할과 아동발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Parke, R. D.(1981).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김성봉 역). 서울 : 샘터.
- Park, R. D.(1981). **아버지의 역할**. (황응연, 장휘숙 역). 서울: 창지사.

- Parke, Ross D(1986). **아버지의 역할**. 서울 : 창지사.
- Parke, R. D.(1995). *Fathers and familie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pp. 22-63). Hillsdale, NJ: Erlbaum.
- Rob Parsons(2000). *The sixty minute father*, Hodder & Stoughton Ltd. 김시완 역(2002). *아빠와 함께 60분을*.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 Spradley, J.(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 (박종흡 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 Wolfgang Pelzer(2005). *Kinder haben*, 도현정 역(2007). *부모가 된다는 것*. 서울: 지향

Abstract

An ethnographic investigation on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and fathers in infancy

Shin Ha-n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at ar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fathers when they interact with infants and what are their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by observing the process of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and fathers which occur in daily life of families. Research questions related to this purpos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fathers' difficulties in the interactive process with infants?

Second, what are fathers' efforts for smooth interactions with the infants?

The present study is characteristic of an ethnographic investigation and study participants are two infants and their fathers. In order to collect data, participant observation was conducted 2~3 times a week respectively from October 2010 to August 2011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conducted frequently as an informal form. For an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data (participatory observation records, every copy of interviews with the fathers, videos and photos, and journals) were classified, organized and categorized repeatedly and based on it, research questions were created and analyzed.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ndicates that the first difficulty the fathers experience in their interactions with the infants is that they don't identify what the infants want and what they are talking about. Namely, the fathers interpret and respond to the infants' behaviors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or sometimes, they felt difficult due to a failure of coping with the infants' feelings as well as remaining reactionless to their signals. In addition, the fathers felt difficult in using proper words with the infants. Namely, they had communication problems by repeating the same sentences and words regardless of the infants' intentions, or by using wrong sentences, which worked as a reason to make communication with the infants difficult.

The study found the infants' fathers lacked in their ability to cope

with dangerous or new situations or they coped with them slowly, which result in their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ir interactions. In addition, the fathers were too focused on only one thing that they could not do many acts at once and their interactions with the infants were not done smoothly due to father-dominated and one-way behaviors rather than changing their acts seeing the infants reactions. As the fathers did not have enough time to be with the infants, they did not understand the infants' behavior patterns and felt difficulties in their interactions as the infants wanted and followed their mothers more.

Second, it found that the infants' fathers make lots of efforts for smooth interactions solving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with the interactions with the infants. Namely, they observed how their wives interacted with the infants and imitated them and made efforts including repeating asking again or saying in other words in order to find out reasons depending on various situations and to understand what the infants intended. Besid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fants' intentions or behaviors, they not only experienced their life pattern and learned common sense of parenting employing a variety media but also tried to find out various solutions including accepting advice through dialogues with their wives.